

제 1 교시

2021-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의 오늘 국군의 내일 조국의 미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사관학교출제위원회

盡人事待天命

제 1 교 시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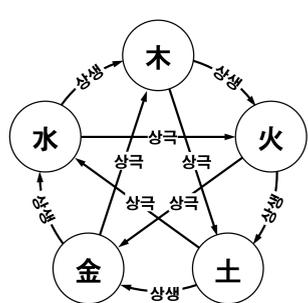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동양인들은 구름이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숨을 쉬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 모두가 ‘기(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실은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여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공기(空氣)라고 ㉠ 불렀다. 또한 기의 모임과 흩어짐에 따라 만물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즉 흩어진 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양적 사고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주로 유목 생활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한군데에 정착하기보다는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떠나야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개척하고 적응해야 할 대상이었다. 현재의 ‘이 공간’에서의 삶이 언제든 다음의 ‘저 공간’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 ‘여기’보다는 더 살기 좋은 ‘저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이상향을 지향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일찍부터 농경이 자리 잡은 동양에서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곳이며 다른 곳인 ‘저기’로의 이동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농경의 터전인 ‘여기’ 즉, 자연에서의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났다. 때문에 동양에서는 삶의 터전인 자연을 합일의 대상이자 가장 닮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자연은 스스로 생성을 거듭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때 그 원리를 주관하는 존재를 천(天)이라 하였다.

하늘[天]과 인간 세계의 관계는 한나라 동중서(董仲舒)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동중서는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고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사람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늘은 선(善)의 의지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보았다.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즉, 하늘을 닮은 인간이 기를 매개로 하늘과 서로 호응한다는 것이다. 사고를 주관하는 인간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은 것이고, 지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발이 평평한 것도 땅을 닮았다 하며 인간을 하늘의 축소판이라고 보았다. 때로는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 그러면 하늘은 자연의 운행을 어긋나게 하여, 땅에서의 어긋난 인간의 삶을 경계하고 하늘의 뜻을 돌아보게 하여 바로잡으려 한다.

그는 우주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때 인간과 자연은 기를 매개로 서로 감응한다. 인간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들여 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은 상대적 행위이다. 하지만 들여 마시는 것은 내쉬기 위한 과정이고 내쉬는 것은 들여 마시기 위한 과정이므로 상보적(相補的)이다. 음양 역시 대립하지만 상보적이다. 이는 이 세상의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음양의 이치는 우주 만물의 변화



<그림>

양상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으로 설명한다. 오행의 이치는 세상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으며 존재함을 보여 준다. 오행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관계이다. 상생은 기운을 채워주어 북돋워 주는 관계이며, 상극은 대립하며 기운을 약화시키는 관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오행 중 하나인 나무[木]는 물[水]에서 나와 생성(生成)하므로, 나무는 물과 상생의 관계이다. 반면 나무[木]는 쇠[金]를 만나면 사멸(死滅)하므로, 나무는 쇠와 상극의 관계이다. 이처럼 오행은 상생의 기운으로 보완하기도 하고 상극의 기운으로 약화되기도 한다. 음양과 오행은 만물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 인식이나 모두 인간

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모색해왔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의 삶이 위협받게 된 현대 사회에서 우주 만물이 상보적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한다는 동양적 사고는 매우 가치가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양과 서양의 사유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동양적 사유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동중서와 후대 사상가들을 비교하여 천인감응설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④ 천 사상과 관련된 오행의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절충하여 현대 사회 위기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상보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순환한다.
- ② 동양에서 만물을 이루는 기는 형태는 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 ③ 음과 양의 상보적 관계도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④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의 ‘여기’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떠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동양에서는 서로 다른 생명체나 사물도 기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 <보기>는 윗글을 심화 학습 하며 정리한 내용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하늘에는 기쁨과 성냄, 슬픔과 즐거움의 기(氣)가 있다. 봄에는 하늘의 기쁨의 기로, 가을에는 성냄의 기로 만물이 태어나고 시들며, 여름에는 하늘의 즐거움의 기로, 겨울에는 슬픔의 기로 만물이 자라나고 숨게 된다.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역시 이러한 하늘을 닮은 것이다.
- 위정자의 실책으로 인간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하늘이 재이(災異)를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災殃)을 일으킨다.

- ① 인간에게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기와 인간의 기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② 생성과 소멸의 순행으로 계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하늘을 닮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군.
- ③ 하늘이 ‘재이’를 일으키는 것은 땅에서의 인간의 어긋난 도덕성을 바로잡아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군.
- ④ 하늘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하늘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군.
- ⑤ ‘재앙’ 이전에 ‘재이’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뜻을 돌이켜 보게 하여 하늘을 닮은 인간의 근본을 다시 찾게 하려는 것이군.

19. ㉠와 관련하여 <보기>의 두 번째 처방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의학서’의 처방 사례】

한 아이가 구토하며 설사를 하자, 여러 의원들이 독기를 빼내기 위해 약을 처방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의원 갑이 처방하자 구토와 설사가 멈추어 증상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두 번째 처방을 내리자 아이는 회복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의원 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몸의 장기인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은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에 대응됩니다. 장기의 병은 그 장기의 기(氣)가 부족하거나 과할 때 생기니, 상생 및 상극의 관계에 있는 장기의 기운을 조절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비장과 신장이 모두 허약해서 그러한 것인데, 저의 첫 번째 처방으로 비장의 기는 채워졌지만 신장의 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처방을 내리자 병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 ① 상생 관계에 있는 폐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② 상생 관계에 있는 간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③ 상생 관계에 있는 심장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비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④ 상생 관계에 있는 간의 기운을 내려 주어 부족한 비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⑤ 상극 관계에 있는 비장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렀다.
- ②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 ③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 ④ 친구는 반가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 ⑤ 그 가게는 옆 가게보다 값을 비싸게 불렀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학적으로 해석은 법관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해석을 거친 다음 개별 사안에 적용된다. 법조문의 의미로만 한정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발견’, 법조문의 의미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형성’이라 한다.

법발견은 법관이 적합한 법률 조문을 찾아서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삼단논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적삼단논법은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되는 연역적 추론 과정을 법률 적용에 응용하는 것이다. 즉 대전제인 법률의 내용에 소전제인 법적사태가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법적사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며, 이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섭이라고 한다. 이때 ㉠ 법발견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법관은 법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섭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의 법관의 역할은 법률의 완전성을 신뢰하고 법적 분쟁을 법적삼단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조문이 이러한 인간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 조문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명제의 형태로 기술된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시점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의 불완전성을 ‘법률의 흠결’이라고 한다.

법률의 흠결은 크게 명시적 흠결과 은폐된 흠결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흠결은 적용할 법률 조문이 다양한 법적사태들을 충분히 포섭할 정도로 내용을 갖추지 못하여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은폐된 흠결은 법률 조문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을 세부적으로 한정해야 하는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 등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과잉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률의 흠결 때문에 법관이 법적 판단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이때 법관은 법형성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흠결은 법률의 유추 적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보충된다. 즉, 법률 조문의 공백으로 인해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유사한 다른 사안을 규율하는 법률을 찾아 이를 해당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조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실수로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은폐된 흠결은 목적론적 축소 적용이라는 방법으로 보충될 수 있다. 이는 법률 조문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들 중에서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형성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법률의 유추적 적용이든 목적론적 축소 적용이든 법형성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조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관이 흠결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한다. 삼권이 분립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권을 갖는다.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데, 이를 사법권의 법적 기속(羈屬)이라 한다. 따라서 법관의 법형성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입법의 취지와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논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지만 법관의 법형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들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은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에 적합한 법률이 존재

해야 하며, 그 조문에 명확히 포섭되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만일 형법을 적용할 때 유추 적용을 인정하면 새로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 법 적용 시 법관의 법형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 권력이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1. 밑줄을 통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법발견과 법형성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 ② 법발견과 법형성 과정에서 법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③ 법발견과 법형성의 법적 적용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④ 법발견과 법형성 중 법률의 완전성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⑤ 법발견과 법형성의 관점에서 흠결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22. <보기>의 '예령'의 입장에서 ㉠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개념법학은 법체계와 법률의 완결성을 신뢰하고, 법률의 개념적 분석과 논리적 추론으로 법적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외부 요소와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예령은 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입법의 의지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개념법학은 법률을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의 천국에서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었다.

- ① 법률을 제정한 사회적 목적과 의도에 맞게 법률 조문의 범위로만 판단해야 한다.
- ② 법률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충실하게 적용하려면 법률의 완결성을 신뢰해야 한다.
- ③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법의 목적과 입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법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입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 ⑤ 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외부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3. ㉠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 < 보 기 > —

- ㉠. 법관은 사안에 따라 법률 조문에 반대되는 판단도 할 수 있다.
 ㉡. 법관은 자신의 주관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법관의 임무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 법관은 불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포섭할 때에는 법조문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다음은 학생들의 모의 법정에 관한 내용이다. 윗글과 <자료>를 읽고 24번, 2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자 료 > —

[사건 개요]

‘갑’은 풀을 모아 불을 붙인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붙어, ‘을’이 소유한 과수원을 태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관련 법률 내용]

형법 제3조(실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생의 판결문]

[학생 1]	<p>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은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과수원을 태운 갑의 행위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p> <p>갑의 행위는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처벌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가능하다.</p>
[학생 2]	<p>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이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물건 또는 건물을 과실로 태운 사람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타인이 소유한 건물을 방화한 경우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방화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판단은 불합리하다.</p> <p>‘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을 제1조만 수식한다고 보고, 제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타인이 소유한 건물을 과실로 태운 갑의 행위도 이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므로 처벌해야 한다.</p>

* 실화(失火): 잘못해서 불을 냄.

* 소훼(燒燬): 불에 태워 없앴.

24.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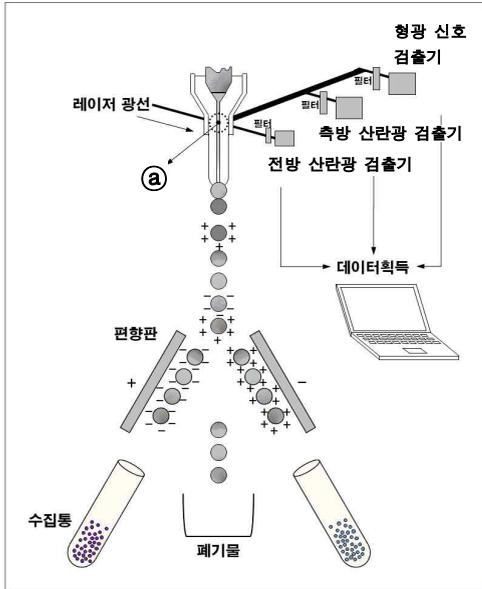
- ① 갑의 행위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② 갑의 행위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
- ③ 실화는 방화의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④ 포섭할 수 없는 법적사태는 유사한 법률로 판결해야 한다.
- ⑤ 법률로 해석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는 법적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이 갑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2는 다른 법률 조항의 처벌 수위를 참조하여 자신의 판결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있군.
- ③ 학생 2는 갑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발생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1과 달리 해석하고 있군.
- ④ 학생 2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이 제1조와 제2조를 수식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 조문의 완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이군.
- ⑤ 학생 1과 학생 2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법적삼단논법에서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의 발생 여부나 암의 악성도 등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핵이나 DNA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암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임상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세포 분석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암의 발생 여부나 악성도 및 세포의 현재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형광 염료로 세포, DNA 등의 세포 내 물질들을 염색한 후 이를 부유액 상태로 만들어 유세포 분석기 내부에 고속으로 통과시켜 세포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림 1> 유세포 분석기 기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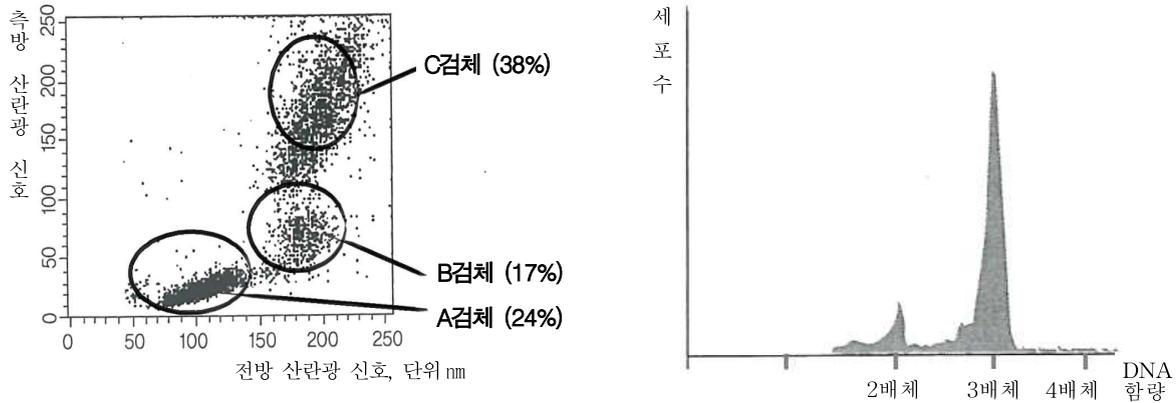
유세포 분석은 유세포 분석기로 빛의 세기를 통해 세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세포 검체를 하전시켜 분류하는 방법이다. 유세포 분석법을 시행할 때에는 먼저 형광 물질로 염색된 세포 검체를 부유액 상태로 만든 후 유체실의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한다. 주입된 부유액이 레이저 광선이 조사(照射)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반사 거울과 조정 렌즈로 검체의 중심에 초점이 맞도록 조정된 레이저 광선이 조사된다. 이 광선은 <그림 1>의 ① 지점에서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는 세포 검체들과 부딪힌 후 산란되거나 세포 내부로 흡수되는데,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는 방향인 광축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에, 레이저 광선의 직각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세포 과립성과 내부 복잡도에 비례한다. 또한 세포에 염색된 형광 물질은 조사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고유한 파장의 형광 신호를 방출한다. 방출된 형광 신호의 양은 세포 내의 DNA 함량에 비례한다. 통상 사용하는 형광 물질인 FITC와 PE는

488nm의 레이저 빛을 받으면 약 535nm의 파장의 녹색 빛과 약 585nm의 파장의 주황 빛이 각각 방출된다.

전방 산란광 검출기는 광축 방향으로 산란하는 전방 산란광을, 측방 산란광 검출기는 측방 산란광을, 형광 신호 검출기는 세포 검체에서 방출되는 형광 신호를 검출한다. 각 검출기 앞에는 광학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분석하려는 목적에 따라 광학 필터를 선택하여 특정 신호의 파장을 검출한다. 예를 들어 FITC가 방출하는 형광 신호를 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535nm 근처의 파장을 통과시키는 광학 필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530 \pm 15\text{nm}$ 의 파장을 통과시키는 '530/30' 광학 필터를 사용한다.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관에 의해, 형광 신호는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 신호로 바뀌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이들은 각 세포 별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나 내부 복잡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2차원 좌표상의 X축과 Y축 상에 점들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림프구, 단핵구, 호중구 등으로 분류되는 백혈구를 세포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에는 X축을 전방 산란광 신호 세기로, 세포 내부의 복잡도를 분석할 때에는 X축을 측방 산란광 신호 세기로 설정한다. 이때 Y축을 해당하는 세포의 검체 수로 설정하면 세포의 크기나 내부 복잡도 등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전방과 측방 산란광 신호를 한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세포 별 크기와 내부 복잡도의 상관관계를 세포의 분포 비율로 파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세포에는 2배체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분열이 진행될 때는 그 수가 두 배로 증가되었다가 체세포 분열이 완료되면 세포가 둘로 분열되어 다시 2배체가 된다. 그러나 암세포의 염색체 수는 정상 세포와 다르게 나타난다. 세포 내 DNA 함량은 염색체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 세포와 암 세포는 DNA의 함량이 다르다. DNA는 형광 신호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형광 물질로 DNA를 염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암 발생 여부를 알기 위해서 동일한

형광 물질로 염색된 DNA는 동일한 파장의 형광 신호를 방출한다. 이 경우 세포 내 DNA 함량에 따라 방출되는 형광 신호의 양이 달라지므로 <그림 3>과 같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단, 각 검체의 ()는 전체 검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2>

<그림 3>

한편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생물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혈구 세포에서 림프구와 단핵구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림프구는 양(+)으로, 단핵구는 음(-)으로 하전되도록 설정한다. 세포 검체가 레이저 광선 조사부를 통과하면, 세포 검체의 유형이 순간적으로 측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전하가 세포 부유액에 하전된다. 이후 이 세포 부유액에 초음파 진동을 가하면 부유액이 물방울로 변환되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편향판을 통과하여 림프구는 음극판 쪽으로, 단핵구는 양극판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이외의 세포는 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한 유세포 분석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세포의 물리학적 특징과 생물학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레이저, 필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가 지닌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6.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통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유세포 분석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세포의 핵이나 DNA 상태 분석이 암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유세포 분석법에서 검사할 세포를 부유액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③
○ 유세포 분석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포의 물리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유세포 분석법에서 세포 내 물질을 형광 염료로 염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포 검체는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된 후 형광 물질로 염색된다.
- ② 유세포 분석 방법보다 형태학적 관찰 방법의 검사 소요 시간이 짧다.
- ③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 ④ 세포 검체에 부딪혀 전방 산란 검출기를 통과한 빛을 분석하면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을 알 수 있다.
- ⑤ 세포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레이저 광선은 세포 검체에 부딪힌 후 모두 산란된다.

28. 윗글과 <그림 2>,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 2>로 볼 때, B는 A보다 세포 과립성과 내부 복잡도가 크다.
- ② <그림 2>로 볼 때, 세포 크기가 작더라도 전체 검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 있다.
- ③ <그림 3>을 보면, 3배체의 존재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그림 3>의 경우 DNA 함량이 큰 검체일수록 전체 세포 검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 ⑤ <그림 2>는 세포 별 크기와 내부 복잡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림 3>은 방출하는 형광 신호의 양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9. <보기>는 유세포 분석기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유세포 분석기 설정 : 488nm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조사함.
 ○ 형광 검출기 검출 결과 : 535nm와 585nm 파장의 형광 신호가 검출되었음.
 (단, 부유액에는 535nm와 585nm 파장을 방출하는 형광 물질로 염색된 세포 검체만 포함되어 있음.)

- ① 가에 주입되는 세포 부유액에는 FITC와 PE로 염색된 세포 검체가 포함되어 있겠군.
- ② 나 는 반사 거울과 조정 렌즈의 의해 세포 검체의 중심에 초점이 맞도록 조정되었겠군.
- ③ ㉣에 '560/30' 광학 필터를 부착했다면, ㉠에서는 585nm 파장의 형광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겠군.
- ④ ㉡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세기는 ㉢에서 측정된 신호와 달리 세포 검체 내부에 포함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겠군.
- ⑤ ㉢를 통과하여 녹색 형광 신호를 방출한 세포 검체가 음으로 하전되었다면 주황색의 형광 신호를 방출하는 세포 검체는 음극판으로 분리되었겠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일어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 김소월, 「왕십리(往十里)」 -

(나)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게들은 바위 모서리나 청태 낀 비탈에

제 몸 가득 흰 거품 부풀려 먼 수평선 바라보아도

해종일 바람 불고 파도 그치지 않아서

㉡ 송천동, 선뜻 발자국 지워지며 끝없던 모래벌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낯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 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 김명인, 「떠나면 곳 스와니 I」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심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한 닷새’ 정도 내리는 비는 여정에 지친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시적 상황이다. 반면,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는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하는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다. 당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드레와 스무날’ 경은 조수가 낮아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 내리는 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반면, ‘초하루 삭망’ 때에는 어차피 조수가 높고 물도 탁하여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 비가 와도 그만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표현되고 있다.

- ① ‘온다’, ‘오누나’, ‘오는’, ‘울지라도’의 연쇄적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②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유사하겠군.
- ③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비 맞아 나른해서’와 ‘온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데.’는 비가 다른 공간에서도 내리는 상황을 화자가 전달하며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의 상황 극복 의지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준다.
- ③ ㉠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이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 ⑤ ㉠과 ㉡은 모두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3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을 통해 ‘어느 집 양자’로 된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 ④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兀兀)히 퍼진 드시
 넘쳐든 기노라 프러거든 회지 마니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펏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닳는 듯 쓰로논 듯 밤늦으로 혼르논 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긏치 퍼젓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논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스이 두고 우리곰 좃니논노
 너븐 길 밧기요 진 하늘 아리
 드르고 쏘즌 거슨 모헨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중략>

남녀(藍輿)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鸝) 교태(嬌態)겨워 흐논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백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곳칠 줄 모르는가
 즈서리 싸진 후의 산밧치 금슈로다

[A]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괴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를 쓰라 브닌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미물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흐야 빙설(冰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흐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흐고 들도 마즈려코
 념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료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리라 유여(有餘)흐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려 보니
 번로(煩勞)흔 므옴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쉼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흐리야
 다만 흐 청려장(靑藜杖)이 다 뵈 되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가니 밧시라 업슬소냐

불니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프랍흐락 노혜로 소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흐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活蕩情懷)야 이에서 더흐소나
 이 몸이 이렇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나)

찬연한 봉(鳳)새 날며 옥룡(玉龍)이 서린 듯한 산세(山勢), 푸른 빛 송림(松林) 자락
 지필봉(紙筆峯)과 연묵지(硯墨池)를 갖춘 향교(鄕校)에서
 마음은 육경(六經)에, 의지는 천고(千古) 궁구(窮究)에 둔 공자 제자들
 아! 봄철의 암송(暗誦), 여름의 농현(弄絃)*하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해마다 삼월이면 먼 노정(路程)을 오신
 아! 신관(新官)을 큰 소리로 맞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3수>

붉은 살구꽃 분분(紛紛)하고 방초(芳草)는 무성한데 술동이 앞에서의 긴 봄날과
 질게 푸른 나무 그늘 속 깊이 잠긴 단청(丹青) 집, 거문고 위로 여름 훈풍(薰風)이 불고
 황국(黃菊)과 단풍이 비단에 수 놓을 제 기러기 날아간 뒤에
 아! 눈[雪]에 달빛이 비치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흥(中興)한 성대(聖代)에 길이 대평(大平)을 즐기니
 아! 사계절 놓고 지냅시다 그려.

<5수>

- 안축, 「죽계별곡(竹溪別曲)」 -

* 농현(弄絃): 거문고나 가야금 등의 현악기를 연주함.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간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열거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학문과 연관된 사물을 제시하여 장소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풍류를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35. (가)의 [A]와 (나)의 <5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황앵 교태 겨워’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5수>의 ‘기러기 날아간 뒤에’와 ‘눈에 달빛’은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의 ‘나모’의 ‘즈즈’진 모습과 <5수>의 ‘방초’는 나무와 풀의 무성한 모습을 통해 여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양풍’은 ‘조으름’과, <5수>의 ‘훈풍’은 ‘거문고’와 어우러지며 여름날의 한가로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황운’은 가을의 들판을 나타내며, <5수>의 ‘황국과 단풍이 비단에 수 놓을 제’는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어적’과 ‘들’이 조용하는 장면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5수>에서는 ‘눈’과 ‘달빛’이 조용하는 장면을 통해 겨울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송순은 ‘내 여기서 소요(逍遙)하고 면앙(俛仰)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네.’라고 말했다. 여기서 면앙은 굽어보고[면(俛)], 올려다본다[앙(仰)]는 뜻으로 면앙정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면앙이 나타난다. 먼저 정자를 중심으로 넓은 들판과 강물을 면하고 하늘과 산을 앙하는 공간에 대한 면앙이 나타난다. 화자의 시선은 굽어보는 것에서 올려다보는 것으로 이동하여 자연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한다. 한편 시간상의 면앙은 현재를 면하고 과거를 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안즈락 느리락’하는 ‘기러기’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면’과 ‘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군.
- ② ‘므조친 사정’은 눈같이 퍼진 공간에 대한 ‘면’이며 하늘에서 ‘꼬즌’ 모습을 한 ‘모’는 ‘앙’으로, 정자에서 바라본 ‘면앙’의 경관을 조화롭게 드러내는군.
- ③ ‘일월도 한가하다’는 시간상의 ‘면’을 통한 화자의 생각은 시간상의 ‘앙’을 거쳐 ‘니 적이야 괴로고야’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군.
- ④ ‘인간을 썬나’오기 전의 ‘겨를 업’음으로 인해 ‘청려장’이 ‘피 디여’졌다는 화자의 인식은 시간상의 ‘면앙’을 통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화자가 역사적 인물인 ‘이태백’을 떠올리고 ‘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힐소냐’라며 삶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상의 ‘면앙’에 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 만취당은 정승이 나온다는 명당 터에 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 노름 때문에 빼앗겨 버렸고, 정승 자리에 ‘나’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취당을 다시 찾겠다는 집념으로 살고 있다.

아내로부터 ㉠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날 불러 앉혔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말했니! 모난 돌이 정 맞는 뱀이라구.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했으른…… 너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얼마나 고생을 했냐 말여. 그런데 그 벼슬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구 모가지 걱정을 해야 하다니! 너도 니 오대조 할아버님 꼴이 되구 싶으냐? 그분께서 두 바른 소릴 하시다가 조정에서 쫓겨나 낙향하신 거. 처신만 잘했으른 정승자리는 식은 죽 먹기였다는 거. 그래설람 낙향해 가지군 오동남구 인사구마냥 일찍 벼슬자리에서 떨어진 당신 신셀 한탄하믄서 당신은 이왕에 그렇게 됐지만서두 자손들만은 줌(겨울)꺼정 푸른 솔잎마냥 되라는 뜻으루다 만취당이라는 당호를 지어 붙이신겨. 나는 아버지의 그 ㉡ 터무니도 없는 얘기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어렸다면 한 차례 종아리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노여운 기색이긴 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낯빛을 살피면서 노여움을 돋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말씀대로 만취당의 만취가 겨울철이 돼도 솔잎의 푸른빛이 변하지 않는 걸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노후에도 그 굳은 절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에요. 내말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억지를 부렸다. 요새 세상은 옛날하군 달리. 절조를 지키구 살다간 웃음거리가 되는 뱀여. 시류에 맞추어 살아야 하능겨. 그래야 줌에두 늘 푸른 소나무처럼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능겨. 만취당은 그런 뜻으루다 진 당호란 말여. 그런데 니가 아까 한 말, 대체 누가 그러디?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게 ㉢ 그 얘기를 해준 것은 서예학원을 경영하는 아저씨였다. 물론 아버지도 그 아저씨로부터 만취당의 내력을 들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만취당의 정확한 내력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목이 위협하게 됐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들은 뒤부터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절조를 지키느라고 벼슬자리를 잃게 된 오대조처럼 내 신세가 그렇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달포 전, 아버지는 나와 아내를 불러 앉히곤 자못 엄숙하게 말했다. 용이 풀 밖에 나면 개미도 침도를 하는 뱀이여. 어찌다가 그런 실수를 했냐? 실수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소신껏 처리한 일이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다. 치성 드러 낳은 자식이 눈 먼 꼴이여. 야, 이 녀석아! 니가 이 애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놈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며늘애기 너는 만취당에 내려가 애 낳을 걱정해라. 내말 알겠지? 나는 아이를 낳으러 가다가 숲 속에 이르러 해산을 하게 되는 아내의 모습을 연상하며 쓴웃음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투불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환영을 피워 올렸다. 나는 아버지가 만취당을 되찾는 데 성공했기를 빌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 부친께서 틀림없이 이 동촌리에 오셨을 텐데…… 이장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실은…….”

이 경장은 불 단속을 하느라고 굽혔던 허리를 펴고 ㉣ 잠시 멈췄던 얘기를 잇기 시작했다.

“어르신네께서 내려오셨던 건 확실합니다. 이짜, 택짜, 희짜 쓰시는 어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까지…….”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제 이름과 똑같아서 월 수가 있었습시다만. 실은 어르신네께서…… 저희들이 어제 어르신네를 연행했던 일이 있었습시다.”

“지금 뭐랬소? 연행이라고 했소?”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놀래켰기 때문에 혹 헛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실은 어르신네께서 어제 약주가 과하시가지고 군청에 들어가 군수 비서실에서 행패를…… 군청에서 연락해 오길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행패라뇨? 무슨 행패를 부렸단 말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으습시다만. 실은 만취당이 헐리게 됐습시다. 만취당뿐만 아니라 동촌리에 있는 모든 집들이 헐리게 된 겁니다.”

“그건 또 ㊸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경장의 설명은 주민들에게 이미 이주비가 다 지불되었고 이주가 완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되게끔 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얘기는 계속되었다.

“어르신네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핫술을 잡수신 끝에 군청에 들어가셔서 군수를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비서실에서 약주가 잔뜩 취하신 분이래 군수를 만나게 해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네께서 화가 나서서 비서실 전화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경찰에 연행된 아버지는 술이 깬 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렇게 행동하게 됐던 까닭을 알게 되었고 또 이곳 태생의 노인이기도 해서 군청과 타협해 훈계 방면했다는 것이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어제 밤차로 올라가셨지 싶습시다만, 어젯밤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길이 엇갈리신 모양입니다. 이장 집에 전화가 있으니 가서서 맥에 전환해보시지요.”

나는 일시에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길이 어긋났다는 점도 맥빠지게 했지만 그보다도 이제는 만취당을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게 됐다는 실망감이 결정적으로 나를 그토록 맥빠지게 한 것이었다. 내가 이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어떠했겠느냐 싶었다.

- 김문수, 「만취당기(晩翠堂記)」 -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중심 소재를 둘러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 내고 있다.

38. <보기>는 ‘만취당’에 대한 인물의 관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윗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지킨 만취당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실수를 반복하는 ㉢에게 ㉡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② ㉠가 만취당을 세운 내력에 대해 ㉡는 알고 있으나 ㉢에게는 그 내력을 고의로 숨기고 있다.
- ③ ㉡는 ㉠가 만취당이라는 당호를 붙인 이유를 전달하며 ㉢가 현실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④ ㉡는 ㉠가 만취당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치를 ㉢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⑤ ㉢는 ㉠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해서 ㉡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만취당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한 심정을 보이고 있다.

39. ㉠~㉣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나’가 ‘아내’에게 부탁했던 얘기
- ② ㉡: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얘기
- ③ ㉢: ‘아저씨’가 서예학원을 경영하게 된 내력을 밝힌 얘기
- ④ ㉣: ‘아버지’가 ‘군수’를 만나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
- ⑤ ㉣: 동춘리에 와서 ‘이 경장’의 설명에 의해 ‘나’가 알게 된 얘기

40. 용이 풀 밖에 나면 개미도 칩노를 하는 뱀이여를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 볼 일 없게 되어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해서
- ② 소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 ③ 뜻을 굽히면서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 ④ 절조를 지키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비아냥 받을 것을 우려하여
- 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천(上天) 일월(日月)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금강보살(八金剛菩薩)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십 세 후 눈이 멀어 사물(事物)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이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五福)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접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소저는 천신(天神)이 아는지라. 흠향(歆響)*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 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이오? 정말로 그리 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老熟)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變化不測)하여 자칫하면 몰사(沒死)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水路)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生涯)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⑦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춘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 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發願)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하오?”

선인이 그 말 듣고 심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塞)*하여 다시 볼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낭자 말씀 듣자오니, 가륙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 하고 허락하더라.

(중략)

“저 소경 이리로 와 거주 성명을 고하게 하라.”

심봉사가 꿰어앉았다가 시녀를 따라 탐전(榻前)으로 들어가서 세세원통한 사연을 날날이 말씀한다. “소맹은 근본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 하옵니다. 이십에 안맹하고 사십에 상처하여, 강보에 싸인 여식 동냥젖을 얻어 먹여 근근이 길러 내어 십오 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심청이라. 효성이 출천하여 그것이 밥을 빌어 연명하여 살아갈 제,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시주하면 눈 뜬단 말을 듣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공양미 삼백 석에 아주 몸을 영영 팔려 인당수에 죽었는데, 팔만 죽이고 눈 못 뜨니 몹쓸놈의 팔자 벌써 죽자 하였던니 탐전에 세세 원정(原情) 날날이 아련

후에 죽자고 불원천리 왔나이다.”

하며 백수풍진(白首風塵) 고루 겪은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며,

“애고, 내 딸 청아!”

옆어지며 땅을 치고 통곡을 마지아니하니,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벌써 눈에서 피가 두르고 뼈가 녹는 듯하여 부친을 붙들어 일으키며,

“애고 아버지, 살아왔소. 내 과연 물에 빠진 청이오. 청이 살았으니 어서 눈을 뜨시고 딸의 얼굴을 보옵소서.”

[A]

이 말을 들은 심봉사가 어떻게 반가왔던지 두 눈 번쩍 뜨이니 심봉사 두 손으로 눈을 짹짹 비비며, “으으, 이게 웬 말이나? 내 딸 심청이가 살았단 말이나? 내 딸 심청이 살았단 말이 웬 말이나?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하더니, 백운이 자욱하며 청학·백학·난봉·공작이 운무중(雲霧中)에 왕래하며 심봉사 머리 위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심봉사의 두 눈이 활짝 뜨이니, 천지 일월 밝아 왔구나. 심봉사 마음 비취여광하여 소리를 지른다.

“애그머니! 애고, 무슨 일로 양쪽 환하더니 세상이 허전하구나. 감았던 눈 번쩍 뜨니 천지 일월 반갑도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화관(七寶花冠)이 황홀하여 뚜렷하고 어여쁠사. 심봉사가 그제야 눈뜬 줄을 알고 사방을 살펴보니 형형색색 반갑도다. 심봉사가 어찌나 좋은지 와락 달려들어,

“이게 누구냐? 갑자 사월 초파일날 몽중에 보던 얼굴일세. 음성은 같다마는 얼굴은 초면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이런 경사 또 있을까. 여보게 세상 사람들아, 고진감래(苦盡甘來) 나를 두고 한 말일세. 얼씨구 좋을씨고. 지화자 좋을씨고!

- 작자 미상, 「심청전(沈淸傳)」 -

(나)

왕후 : (장승상 부인을 보고) 그러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분명 죽은가 보이다.

장승상 부인 : (눈물을 씻으면서) 네 아마도 그런가 합니다.

왕후 : 그러니 그는 죽었다니 할 수 없으려니와 그 아버되는 심봉사라도 이 잔치에 오든지 거취를 알든지 해서 찾았으면 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련만.

장승상 부인 : 네에 효녀 심청의 성을 널리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도 지당하신 처분이신 줄 아옵고 신도 주소*로 심봉사를 기다려 마지 않습니다.

(중략)

장승상 부인 : 응 마침 잘 나왔소. 아니 참 내 양딸 심청이지. 심청이 어여 이리 오너라. 중전마마께서 혹시 네가 선불리 할까 하셔서 또 근심을 합신다.

왕후 김가가 심가가 되어서 장님을 아버지라 하고 살기가 거북하리라만 어쩔 수 있니. 네가 아주 영영 심청이가 된 셈만 치려무나. 그러면 출천대효 심청이가 되니 오죽 좋은 일이나.

궁녀 김씨 : 명심하겠나이다.

장승상 부인 : 거리낄 건 조금도 없느니라. 눈을 뜬 사람이라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니 그저 아버지라고만 하고 살뜰히 시중만 들어주면 그만이다.

㉠ **궁녀 김씨** : 중전마마 영이시니 힘껏 시행을 하겠습니까마는 혹시 무슨 서슬에 탄로가 나면……

장승상 부인 : 그럴 리야 없지. 그리고 참 나에게도 마님이라고 깎듯이 불러야 한다.

궁녀 김씨 : 네.

내시 을 : (하수로 등장, 읍을 하고) 황주 도화동 심학규 알현이요.

왕후와 장승상 부인 반기면서 마주 보고는 하수편을 바라본다. 심봉사 내시 을에게 인도받아 등장. 궁녀 김씨와 다른 궁녀들도 심봉사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궁녀 김씨는 좋지 아니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인다.

장승상 부인 : (심봉사가 등장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궁녀 김씨를 보고) 그러면 내가 일러 준 대로 잊지 말고 있다가 내가 손짓을 하고 아가 심청아 어서 오너라 너의 아버지 오셨다 하거들랑 아버지 부르고 쫓아와서 매달려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묻거들랑 중전마마께서 마침 그때 해변을 순어하시다가 구해주셨다고 응 그런 말 다 잊잖았지?

궁녀 김씨 : 네.

심봉사 : (내시 을의 인도로 전계*의 자리 위에 엎드려 세 번 절한다.) 소맥은 황주 도화동 사육던 심학규로.....

왕후 : 응, 네가 심학규시 분명하냐?

심봉사 : 네에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팔자가 기구한 심봉사 심학규에 갈 데 없사옵니다.

왕후 : 그렇다면 너를 기다리던 사람이 따로 있으니 만나 보아라. (장승상 부인에게 눈짓을 한다.)

장승상 부인 : (전계로 나가서) 심생원 나를 알겠소?

심봉사 : ㉠ 어? 이 이 도화동 장승상 부인 아니십니까? 아 참 죽잖고 살아 있으니 또 뵈게 됩니까그려?

장승상 부인 : 네, 꺾 반갑소. 그런데 심생원이 정말 반가운 일이 있소.

심봉사 : 네? 반가운 일이라니요? 혹시 뺨덕이네가 그 황봉사 놈하고 여기 온 것을 부인에게서 붙잡아 놓셨습니까?

장승상 부인 : 아아니요. 그 따위 뺨덕어미하고는 만 명을 주어도 아니 바꿀 일이지요.

심봉사 : 그럼 무엇이 반가운 일입니까? 혹시 나라에서 나를 붙잡아다가 전장이나 좀 내어주신답니까?

장승상 부인 : 그것도 있지요. (방백) ㉡ 대번에 불쑥 말을 하면 너무 좋아서 기절을 할 테니 천천히 해야지. (심봉사더러) 그것도 있지만 더 반가운 소식이지요.

심봉사 : 그러면 혹시 우리 우리 심.....(말을 마저 하지 못한다)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 소식입니다.

심봉사 : 심청이 소식이지요?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가.....자세 들으시요, 죽지 않고.

심봉사 : 심청이가, 네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아 있대요?

장승상 부인 : 네, 살아 있어요.

심봉사 : 그러면 그렇지. (벌떡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어허 좋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심청이가 죽다니 될 말인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심청이가 우리 딸 심청이가 출천대효 내 딸 심청이가 죽대서 야 천도가 무심하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글썽 어쩐지 그런 것만 같더라니 거 참 혈육이란 할 수 없는 거야! 어쩐지 어데 가서 살아있는 것만 같더라니 말이야!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런데.....그런데 말씀입니다. 장승상 부인 그래 그 애가 지금 있기는 어데 가 있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장승상 부인 :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 애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의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 영? (또 한 번 달리 놀라) 영?

궁녀 김씨 : ㉢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꺾안으려고 달려든다) 네가 띠어 주려던 눈도 시방이야 떴다.

궁녀 김씨 : 아이구머니! 송축해라!(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니 눈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심봉사 얼떨떨해서 멍하니 섰다가 전후좌우와 위아래로 둘러본다. (특히 관객에게 눈 뜬 것이 보이도록)
장승상 부인과 왕후는 궁녀 김씨가 실패한 것을 당황하다가 심봉사가 눈 뜬 것을 알고 기뻐한다.

장승상 부인 : 어찌면! (심봉사를 들여다보며) 정말 눈을 떴구려! 원 이런 신통한 도리가 또 있을까?

심봉사 : ㉠ 네 하도 반가워서 눈이 그냥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승상 부인 : 원 어찌면 몽운사 부처님의 영험이 인제야 발현했나 보우. 그것도 다 심청이가 죽은 정성이지요.

심봉사 : 네 심청이가 또 죽었어요?

장승상 부인 : 네 아니 아이구 이걸 어찌나 내가 입이 방정이야. 그 애가 또 아니라 하고 달아났지!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왕후 : 할 수 없지요. 일희일비라니 눈 뜬 것이나 다행한 일이니 바른대로 말해 주시오.

장승상 부인 : 여보, 심생원 그런 게 아니라 심청이는, 정말 심청이는 저 인당수에서……

심봉사 : 네, 인당수에서? 아니 아까 그건?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아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청이는 인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옆드려진다) 아이구 이 놈의 눈 구멍! 딸을 잡아먹은 놈의 눈 구멍! 아주 눈 알맹이째 빠져 버려라. (마디마디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

- 채만식, 「심봉사」 -

- * 흠향: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음.
- * 억색: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마음이 답답함.
- * 주소(晝宵):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전계(殿階): 궁전(宮殿)으로 오르는 계단의 섬돌.
- * 무춤: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는 모양.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 (나)는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독백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나)는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물이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물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이 겪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욕망을 지향하고 갈망하는 ‘욕망 주체’이자 다른 이들의 욕망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욕망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욕망은 욕망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중재자의 도움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또한 가끔은 중재자의 희생이나 절대적 존재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인당수를 건너고 싶다는 ‘남경장사 선인’의 욕망은 ‘심청’의 욕망이 실현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② ‘천신’은 개별적인 욕망 주체의 지향에 응답하여 욕망을 중재하는 초월적인 힘으로 욕망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
- ③ ‘귀덕 어머니’는 ‘아비’의 욕망을 대신 실현하려는 ‘심청’을 위해 수로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자 하는 욕망 주체의 중재자가 된다.
- ④ 자신의 욕망으로 ‘아비’의 욕망을 발원한 욕망 주체는 절대적 존재의 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 ⑤ ‘심봉사’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염원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나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된다.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의 궁궐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나)에서의 궁궐은 심봉사가 현실을 직시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 ② [A]에서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기쁨을 보여주고, (나)에서는 인물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A]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에서 일어난 심청의 죽음을 감추려 한다.
- ④ [A]와 달리 (나)에서의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상의하는 것은 심청의 효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 ⑤ [A]와 달리 (나)에서 심봉사가 자신의 현실적인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심청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 신뢰성을 강조하고, ㉡에서 ‘궁녀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심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여 걱정하고, ㉡에서 ‘궁녀 김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 ③ ㉠에서 ‘심청’은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예상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다.
- ⑤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언급하며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들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45. ㉠~㉤ 중 (나)를 공연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승상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반가움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반응하며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② ㉡: 심봉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한 후 심봉사 쪽으로 몸을 돌리고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③ ㉢: 어색한 태도로 심봉사 앞으로 나오면서 마지못한 목소리로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④ ㉣: 눈을 뜬 것에 대한 신기함과 딸이라고 여겼던 인물이 도망간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⑤ ㉤: 심봉사의 애절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절제된 감정 표현이 드러나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 권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영역(공통) 답안지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①	⑤	④	⑤	④	④	④	②	④	②	②	③	②	③	③
문항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④	①	②	①	③	①	③	⑤	①	④	⑤	④	④	④	②
문항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정답	②	③	②	③	②	④	①	①	⑤	①	③	③	⑤	⑤	⑤

제 1 교 시

2020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
관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담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국화 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그렇다!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 ‘어찌 제왕의 문에 들을 부러워하라’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신석정, 「대바람 소리」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벽차리
 봄이 오는 이 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숲에서」 -

1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신석정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중시했던 작가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 인용된 낙지론의 말미에는 ‘豈羨夫入帝王之門哉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좁은 서실’은 무료한 일상의 공간이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 ② ‘그렇다!’라는 독백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쫓들리고 / 웅숭거릴지언정’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가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제왕의 문’은 화자가 부정하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 ⑤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거문고 소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18.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산’은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목은 잎’처럼 ‘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겠군.
- ②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과거에 힘겨운 일을 겪었을 수 있겠군.
- ③ ‘거기 이는 바람’과 ‘찬 서리’는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겠군.
- ④ ‘지나온 날들처럼 / 남은 생도 벽차리’에서 과거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짐작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할 수 있겠군.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횡포를 일삼던 마름 집을 마을 사람들과 습격했다가 쫓기던 막동이는 다른 데로 피하라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을을 등진다. 얼마 후 잘 지내고 있다는 막동이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듬해 어머니는 막동이가 형무소에 갇혔다는 편지를 받는다. 둘째 아들을 보내 사정을 알아보니 막동이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을 암살한 죄로 형무소에 갇힌 것이었다.

“뭘 일이란가, 뭘 일이여?”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냐고, 우리 막동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다른 사람이 뒤집어쓴 것일 거라고 펄펄 뛰어보는 것도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열흘 걸러 한 번씩 허우허우 보성으로 달려 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가 바쁘게 동명동 형무소 면회 창구에 면회 신청을 하여, 두 손을 묶이어나오는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막동이, 그놈의 허영고 부석부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느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곤 했지만, 그놈은 멀거니 이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었다. 그놈의 그런 태도로 미루어,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걸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춰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모두 소갈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 하며 혀를 깨물고 각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마룻장 위에서 울골골 떨고 있는 그 막동이를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란 도저히 없는 일이므로, 하루하루가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놈한테 내리뉘인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란 없는 일이니, 이제 그놈이 벗어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 했다.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었으면 하려면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팔아 받아들인 쌀값으로 마련한 송아지를 도젓소로 준 것, 그것을 팔아 면회를 다니며 써버린 뒤로는 왔다 갔다 할 차비에 먹고 잘 돈, 면회 다니면서 그놈 먹고 마시게 할 돈…… 그걸 마련 못해 주겠다고 양탈을 하는 자식들의 소행이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둑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죽 뺏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갯짓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 놓았다.

그때 복받치는 걱정이 목구멍을 막아 쿨룩 기침을 했고, 그사이 들이마신 찬바람 때문에 그 기침은 연거푸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늙은 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오그라져 들어가는 뱃가죽을 그러쥐고, 숨이 발딱 넘어가는 굵 고웁 소리를 내다가, 헛들던 치차가 잘못되어 달각 지르륵 하고 걸려 돌아가는 것처럼 “으음” 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일어섰다.

<중략>

이날 면회 신청은 물론 그 늙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였다. 접수를 하고 나자 늙은 어머니는 조금해졌다. 전에 하던 것으로 보아,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하며 곧 밥집으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에 우유 장수를 만났다. “아차, 잊을 뻔했구나” 하며 우유 두 병을 샀는데, 그게 제법 따끈한 게 다행이다 싶었다.

그걸 든 채로 밥집으로 가, 쇠고깃국 끓인 냄비를 한 손에 들고, 우유를 찹쌀떡 썩 보자기에 집어넣어 지팡이 든 손에 끼어 들고 면회장 입구로 달려가 기다리는데, 또 왜 이날 아침에야말로 이리도 더디 데려다 주는 것인지 환장할 것 같았다.

㉠ “국이 다 식어뿔구만, 어째서 아직 안 데리고 나온다냐?” 하고 투덜거리던 늙은 어머니는, 쇠고깃국과 우유가 식는 게 안타까워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재빨리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다. 쇠고깃국을 대기소

안의 난로 위에 올려놓고, 우유는 치맛말을 들치고 젓가슴에다 꼭 끼워 물었다.

늙은 어머니의 바로 다음 차례로 접수를 했던 부인들과 남정네들이 자기들 이름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기소에서 면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교도관은 죄수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 죄수 면회 온 사람 이름을 불러들이곤 했다.

㉞ ‘아니, 어쩐 일이란가?’

맨 먼저 접수를 시켰으니 응당 “이막동이 면회 온 분!”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더 먼저 불러들여야 할 일인데도, 이미 늙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접수한 사람들을 무려 여섯 사람이나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면서도,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 넣어주지는 않는 것이었다.

㉟ ‘뭇 땀시 이란단가?’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디 다른 데로 보내버렸을까 하며 조금해진 늙은 어머니의 생각에, 꼭 열두 번째의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막동이 면회 온 분!” 하는 소리가 들려, ㉠ “휘이,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며 난로 위의 뜨거운 쇠고깃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어 안고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 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이막동이가 아들이오?” 하고 물었다.

“예에.”

가슴이 후들거리고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꾸 근질거리며 튀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어 억누르는 데, “이막동이 말고 아들 또 있고?” 하고 다시 물었다. 둘이나 있다고 하자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 뒤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이막동이 어제 옮겨갔어요” 하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 번 일그러뜨리고, 문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여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목포로 갔단 말이오, 어제. 빨리 그리로 가보시오” 했다.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목포로 옮겨라우?”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주억거리주고, 잠시 동안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 “어따 어메, 어째사 쓸꼬!” 하고 허둥허둥 나서다가, 쿨룩 쿠울룩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창자를 그러쥐느라고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다.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되었다는 듯 끝끝 혀를 차는 것이,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까닭이 없을 것이었다.

- 한승원, 「어머니」 -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작중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속 인물이 과거의 일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동이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막동이를 만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③ ㉢: 막동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④ ㉣: 막동이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막동이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해방 후 현대사의 정치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에 갇힌 아들과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옥바라지를 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아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탓으로 전가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 준다. 또한 다른 어떤 현실적 가치보다도 자식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모정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돈을 마련 못해 주겠다고 양탈하는 자식들과 어머니의 갈등은 해방 후 정치적 격동기의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② 동이가 처한 상황을 두고 자책하는 모습은 불행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전가하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는군.
- ③ 송아지를 팔아 막동이 면회를 갈 돈을 마련하는 어머니를 통해 현실적 가치보다 자식을 우선시하는 모정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군.
- ④ 쇠고기국을 난로에 올리고 우유를 젓가슴에 품는 모습에서 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모정을 느낄 수 있군.
- ⑤ 다른 사람이 막동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 생각하는 어머니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호(交好)란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뜻한다. SNS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갱신하여 교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어떤 SNS의 입력창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이 항상 제시되어 있다. 이용자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계정에 무언가 써야만 할 것 같은 압박, 즉 기록 압박에 빠지게 된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계량적 지표로 활용되어 이용자를 서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 서열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더 자주 접속하여, 더 많은 게시물과 반응을 남기는 이용자는 자기 스스로 SNS 공간에서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록 압박은 노출 심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무언가 써야 한다는 압박은 손쉽게 쓸거리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에 주목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상 세계인 SNS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에 비해 SNS에서 자기의 행적과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일에 더 적은 부담을 갖는다.

[A] 철학자 슈티글러에 따르면 사건(event)이란 발생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골라 정보로 구성해 낸 결과이다. 그것은 주로 공적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기록 압박과 노출 심리는 자신의 상태를 ‘미시적 사건’으로 구성해 내도록 SNS 이용자들을 유도한다. 이들은 오늘 점심에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의 음식을 누구랑 먹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공적인 공간에 게시한다. 이런 경향을 ‘미시적 사건화’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사건화는 공적 성격이 부족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경험들을 공적인 공간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SNS에 무의미한 정보가 범람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시적 사건화와 그 제공자는 ‘관심’의 대상보다는 ‘관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상대방에 대한 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적 상호 작용은 크게 ‘관심’과 ‘관음’의 양식으로 구별된다. ㉠ 관심의 양식이 양방향적 시선에 기반을 둔 염려나 기쁨이라면, ㉡ 관음의 양식은 일방향적 시선에 기반을 둔 욕망의 표출에 가깝다. 즉 전자는 타인이 처한 상황과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정신의 과정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상황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관심의 양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안위를 바라지만, 관음의 양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할 뿐 타자의 안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투자하여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규모가 무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NS는 친구 찾기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SNS 친구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도록 유도한다. 어떤 SNS의 경우 대략 1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친구를 둔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SNS에서 150명 이상의 친구를 자주 찾아가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정신적 활동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SNS를 매개로 한 교호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하는 관심의 양식보다 자기만족을 위한 관음의 양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게도, 관음의 양식은 진정한 교호 관계와 거리가 멀다.

SNS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의 주고받음을 양방향적 또는 상호작용적 교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염려와 공감에 기반을 둔 관심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미시적 사건(구경거리)의 주고받음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시선들의 기계적 모음이라 할 수 있다. 비유컨대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 삼아 디지털 공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SNS 이용자는 ㉢ 현대 디지털 산보자인 셈이다. SNS는 이러한 방식의 교호 활동을 부추기기 때문에 인간은 SNS 공간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이어져 있음에도 더 외로워지고,

관계는 더 빈곤해 진다.

물론 SNS 공간에서 모든 이용자가 이러한 양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이용자들은 SNS를 인간관계의 심화나 지적 능력의 확장, 민주적 공론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생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일방향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2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3.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는 수시로 자신의 SNS 방문자 수와 ‘좋아요’ 수를 확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습관적으로 누른다. 방금 전에도 어떤 사람의 SNS 게시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좋아요’를 누르고, “고양이가 멋지네요. 제 계정도 놀러 오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를 슬퍼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는 SNS 친구가 SNS에 올린 축하 파티 사진 게시물을 확인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파티를 한 것이었다. △△는 거기에 “오랫동안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축하해요!”라고 진심 어린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고마워요. 지난번 보내준 위로 메시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번 합격은 다 △△님 덕분입니다.”라고 답했다.

- ①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② 수시로 SNS 방문자 수와 ‘좋아요’ 수를 확인하고 친구 추가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③ SNS 친구와 서로 위로와 축하를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④ SNS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⑤ 다른 사람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점에서, □□와 △△의 행동 모두 ㉡보다 ㉠에 가깝다.

24. 밑글의 ㉠와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스펙터클은 특별한 또는 새로운 볼거리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19세기 파리는 그 자체로 산보자의 스펙터클이었다. ㉠ 19세기 파리의 산보자는 잘 닦인 파리의 대로(大路)를 걸으며 새로운 근대적 도시를 경험하였다.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파사주’(작은 쇼핑몰)를 찾아 쇼핑하는 산보자들에게 파사주는 그 자체가 ‘도시’이자 ‘축소된 세계’였다. 대로의 카페에 앉아 있는 산보자는 스펙터클로 변화한 세계의 구경꾼이자 또 다른 산보자의 스펙터클이기도 했다.

- ① ㉠가 바라보는 대상은 주로 타인이 구성한 미시적 사건이다.
- ② ㉡가 바라보는 대상은 근대적 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 ③ ㉠와 ㉡ 모두 바라보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④ ㉠와 ㉡ 모두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구경하는 자의 시선을 갖고 있다.
- ⑤ ㉠가 바라보는 대상은 실제 세계인 반면 ㉡가 바라보는 대상은 가상 세계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SNS에서는 기상이나 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혀서 지각했다는 소식은 SNS에 빠르게 게시된다. 이런 소식은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닌, 개인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담은 미시적 사건이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쉬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

- ① 학생1: SNS에 올라온 미시적 사건들을 보다 보면 참 즐겁고 흥미로워.
- ② 학생2: 개인의 관점에서는 공적 삶보다 사적 삶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 ③ 학생3: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가치 있는 일이잖아.
- ④ 학생4: SNS에 게시된 사소한 일상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어.
- ⑤ 학생5: 의사소통 내용은 공적이지만 사적인 공간에 게시된 것도 미시적 사건화라 할 수 있어.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죄 지을 줄 아라시면 공명 탐(貪)츠 향여시라.

㉡ 산진(山陣)미 슈진(水陣)미와 희동청(海東靑) 보라미가
심슈 총님(深樹叢林) 숙어나러 산계 야목(山鷄夜鷺) 츠고 날 제,
앗갑다. 걸렸구나. 두 날개 걸렸구나.

먹기의 탐(貪)이 나니 형극(荊棘)을 몰나 보니.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정(酒酹)에 욕설조차 대단하다.

혼즈 안즈 군말흐듯 날 드르라 흐는 말이,

건넌 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뒷집의 손님너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의 득죄(得罪)흐고 외딴섬 드러오면

㉢ 이전(以前) 말은 흐도 말고 여기 스름 일을 비와

고기 낙기 나무 뷔기 즈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향여다가 주인 양식(糧食) 보티거든

한곳에서는 무슴 일노 **공(空)흐 밥**을 먹으랴노

㉣ 쓰즈는 열 손가락 쏘죽이도 아니흐고

것즈는 두 다리논 움죽이도 아니흐니

석은 나무에 박은 쓸인가 전당(典當) 잡은 촉디(燭臺)런가

중 찾으려는 상진인가 빛 받으려는 채주(債主)런가

동이성(同異姓)의 권당*인가 풋낫*의 친구런가

㉤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인(病人)인가 반편인가

화초(花草)라고 두고 불가 괴석(怪石)이라 노코 불가

은혜 끼친 일이 잇서 특명(特命)으로 먹으려나

저 지은 죄 다투 타시며 제 셔름을 니 아던가

밤나즈로 우는 소리 슬픈 소리 듯기 실타.

흐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흐다마는

풍속을 보아흐니 **놀랄 일이 막심**하다.

인륜이 업셔시니 부즈(父子)의 쓰흠이요

남녀를 불분흐니 계집의 등짐이라.

방언(方言)이 괴이흐니 존비(尊卑)를 아올손가.

다만 아는 거시 손곱아 주먹 험의

두 다섯 홀 다섯에 못 다섯 꼽기로다.

포학 탐욕이 예의 염치 되어서며,

분전(分錢) 승합(升合)*으로 효제 충심 숨아시며,

한둘 공덕흐면 지효(至孝)로 아라시며,

㉥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보리 담은 큰 향아리요

출필고(出必告) 반필면(反必面)*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무지(無知)가 이러하고 막지(莫知)가 이러하니,
 왕화(王化)*가 불급(不及)하니 견용(犬戎)의 행사*로다.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라.
 내 귀양살이 아니라면 이런 일 보아시라.

- 안도환, 「만언사(萬言詞)」 -

- *권당: 친척.
- *뜻낫: 익힌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얼굴.
- *분전승합: 푼돈과 얼마 되지 않는 곡식.
- *혼정신성: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
- *출필고 반필면: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인사하는 예법.
- *왕화: 임금의 교화.
- *견용의 행사: 오랑캐의 행동.

(나)

앞으로 나아가 **소년대(少年臺)**에 올랐다. 천왕봉을 우러러보니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었다. 이곳에는 잡초나 잡목이 없고 푸른 잣나무만 연이어 나 있는데, 눈보라와 비바람에 시달려 앙상한 줄기만 남은 고사목이 10분의 2~3은 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노인의 머리 같으니 다 숨아낼 수 없을 듯하다. ‘소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 혹 **영랑***의 무리를 일컬을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천왕봉은 장로(長老)이고 이 봉우리는 장로를 받들고 있는 소년처럼 생겼기 때문에 ‘소년대’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주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데, 하물며 제일봉에 올라 바라봄에라.

드디어 지팡이를 내저으며 **천왕봉**에 올랐다. 봉우리 위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사(聖母祠)였다. 사당 안에 석상 한 구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흰옷을 입힌 여인상이었다. 이 성모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하기를 “고려 태조대왕의 어머니가 어진 왕을 낳아 길러 삼한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높여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영남과 호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을 비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떠받들고 음사(淫祠)*로 삼으니 바로 초나라, 월나라에서 귀신을 숭상하던 풍습이다.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산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는지를 내려다보며 살피다가, 그들이 오면 토끼나 꿩처럼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긴다. 유람하는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가, 하산하면 다시 모여든다.

봉우리 밑에 별집 같은 판잣집을 빙 둘러 지어놓았는데, 이는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여 묵게 하려는 것이다. 짐승을 잡는 것은 불가에서 금하는 것이라 핑계하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소나 가축을 산 밑의 사당에 매어놓고 가는데, 무당들이 그것을 취하여 생계의 밑천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모사, 백모당, 용유담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 되었으니, 참으로 분개할 만한 일이다. 이 날 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 뿌연 대기가 사방에서 걷히니, 광활하고 까마득한 세계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졌다. 마치 하늘이 명주 장막을 만들어 이 봉우리를 위해 병풍처럼 둘러친 듯하였다. 감히 시야를 가로막는 한 무더기 언덕도 전혀 없었다.

(중략)

삼면에 큰 바다가 둘러 있는데,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큰 파도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마도의 여러 섬은 까마득히 하나의 탄환처럼 작게 보일 뿐이었다. 아, 이 세상에 사는 덧없는 삶이 가련하구나.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때는 다 끊어모아도 한 움큼도 채 되지 않는다. 인생도 이와 같거늘 조잘조잘 자기만 내세우며 옹으니 그러니 기쁘니 슬프니 하며 떠벌리니, 어찌 크게 웃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본 것으로 치면, 천지도 하나하나 다 가리키며 알 수 있으리라. 하물며 이 봉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의 작은 물건이니, 이곳에 올라 높다고 하는 것이 어찌 거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 안기생, 악전*의 무리가 난세의 날개와 학의 등을 타고서 구만리 상공에 떠 아래를 바라볼 때, 이 산이 미세한 새털만도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당 밑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잣나무 잎을 엮어 비바람을 가리게 해 놓았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는 매를 잡는 사람들이 사는 움막입니다.”라고 하였다. 매년 8, 9월이 되면 매를 잡는 자들이 봉우리 꼭대기에 그물을 쳐 놓고 매가 걸려들길 기다린다고 한다. 대체로 매 가운데 잘 나는 놈은 천왕봉까지 능히 오르기 때문에 이 봉우리에서 잡는 매는 채주가 빼어난 것들이다. ㉠ 원근의 관청에서 쓰는 매가 대부분이 봉우리에서 잡힌 것들이다. 그들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치니, 어찌 단지 관청의 위엄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 뿐이라. 또한 대부분 이익을 피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리라. 아, 소반 위의 진귀한 음식 한 입도 안 되지만 백성의 온갖 고통 이와 같은 줄 누가 알겠는가. 해가 기울어 향적암(香積庵)으로 내려갔다.

- 유몽인,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

*영랑: 신라 때 화랑의 우두머리.

*음사: 유가(儒家)에 어긋나는 제례나 그 행위를 일컬음.

*안기생, 악전: 중국 신선의 이름들.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

2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② 고립된 처지에서 비릇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③ 경계하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난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진취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2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공혼 밥’을 먹으려 한다며 ‘주인’에게 ‘박대’ 당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놀랄 일이 막심’하다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의 ‘풍속’을 ‘견용의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소년대’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피며 ‘천왕봉’ 유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영랑’을 떠올리며 선인들이 남긴 옛일을 회고하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천왕봉’에 올라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때’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유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배운 일들을 열거하여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풍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동일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냉소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비유적 수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9. ㉠,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상징한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비유한 자연물이다.
- ③ ㉡는 ㉠과 달리 화자와 타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④ ㉠과 ㉡ 모두 탐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존재이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덕목을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전통적으로 산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로 인식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리산 성모(聖母)에게 조정의 관리가 의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유교적 이념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지리산 성모 신앙은 부침을 겪게 된다. 유몽인이 지리산 유람을 한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다. 백성들은 생활 터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지배층과 임금에게서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일순간에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찾아 의탁하고자 했다. 무당들은 이러한 백성들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지 못했다. 당대 조선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① ‘흰옷을 입힌 여인상’을 ‘고려 태조대왕의 어머니’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모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복을 비는 자들’의 행위를 ‘음사’로 규정하면서도 강력히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조선이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살 만큼 백성들이 찾아온다는 것에서 임진왜란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이 초자연적 존재에 의탁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면 ‘토끼나 꿩처럼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기는 것에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배층에게서 찾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성모사, 백모당, 용유담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라고 지칭하며 ‘분개’한 것에서 유몽인이 유교적 이념의 테두리 속에서 지리산 성모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권은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 침해 받지 않는다.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말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권자가 아닌 사람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반드시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직 거래나 교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화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생산한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생산과 약탈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갑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을의 재화를 약탈하는 경우에 적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약탈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재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자원을 배분해야

[A] 할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 약탈, 방어 세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이나 방어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권 제도를 위해서는 입법 비용, 경찰 비용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의 재화의 증가분보다 작을 경우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효율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든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도 회사가 자기의 철도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라면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마음대로 ㉤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농민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므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익권을 누구에게 ㉥ 부여할 것인가를 법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우선 법이 농민들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철도 회사는 100의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 권익권의 가격이 100보다 작다면 철도 회사는 권익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 크고, 철도 회사의 비용인 100보다 작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철도 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면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인 50보다 큰 금액을 철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법이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는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사려하겠지만, 50보다 큰 가격으로는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 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익권을 판매할 경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이 1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권익권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익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②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무제한적인 속성을 지닌다.
- ③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려 한다.
- ⑤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3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상대의 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각자 가지게 되는 재화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갑과 을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생산에 사용하여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각각 10과 15이다. (단, 사회 구성원은 갑과 을뿐이고,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갑	
		상대의 재산권 존중	상대의 재산권 부인
을	상대의 재산권 존중	갑=10, 을=15 (가)	갑=14, 을=6 (나)
	상대의 재산권 부인	갑=4, 을=17 (다)	갑=7, 을=10 (라)

- ① (가)의 경우,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최대를 이룬 상태이다.
- ② (나)의 경우, 갑의 재화가 14가 된 것은 을의 재화를 약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③ (다)의 경우, 을은 자신의 자원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 ④ (나)와 (다)의 경우,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라)로 귀결될 것이다.
- ⑤ (라)를 고려할 때,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3.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회사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며, 이 기계의 비용은 50이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A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 ①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겠군.
- ②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A회사의 권익권을 사려 하겠군.
- ③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회사는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 ④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A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 ⑤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34. ㉔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 ② 개개인의 권익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 ③ 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 ④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 ⑤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35. ㉑~㉕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세력이나 기운 따위가 쇠함.
- ② ㉒: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 ③ ㉓: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 ④ 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 ⑤ ㉕: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줌.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는 서로 사랑하여 혼례를 올리려 하지만, 임금은 이를 무시하고 장원급제한 지경에게 후궁인 귀인 박 씨의 딸(옹주)과의 혼례를 하교한다. 지경은 이를 거부하지만 임금은 화를 내며 위력으로 혼례를 강행한다. 이에 지경은 최홍일에게 연화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공이 가로되,

“불가하나 네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라.”

언파에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증명하여 ㉠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수괴함을 띠어 사색이 태연하여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 같아 반가운 정이 유동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을 대하매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하더라.

돌아가기를 잊고 앉았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生)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심분 개유하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폐하더니, 길일이 다다라 행례할새 옹주의 자색이 전혀 없고 포독불인(暴毒不仁)*함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끄르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고 명조에 입궐하여 문안하니 상이 웃으며 가로되,

“네 죄 크게 통한하더니 이제 자식이 되니 가장 어여쁘다.”

하시고 즉시 부마의 관교(官敎)를 주시니, 웃고 꿇어 반자와 계하에서 사은(謝恩)하고, 귀인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포독하니, 더욱 모골이 송연하더라.

박 귀인이 부마의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꺼워하더라.

부마가 ㉡ 집에 돌아와 대문에 들며 하인을 명하여 교자(轎子)를 산산이 깨치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관교를 내어 땅에 던지니, 윤공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이 어인 일이뇨. 임금이 주신 교지(敎旨)를 업수이 여김이 어찌 이렇듯 불공한가.”

하고, 또 개유하더라.

윤공의 집이 서문 밖일러니, ㉢ 옹주궁을 경내 끝명동에 짓고 상이 윤공을 성내로 들라 하시니, 공이 마지 못하여 옹주궁 곁에 집을 사오니, 본집은 둘째 아들 정랑(正郎)에게 주더라.

최홍일의 집이 또한 서문 밖일러라.

옹주를 친영(親迎)*하여 오니, 얼굴이 작고 자색이 바이 없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상하가 불쾌하나, 왕의 위엄을 두려워 공경 접대하더라. 윤공이 최 씨를 불쌍히 여겨 자주 가 보니, 그 용모 태도가 절승하여 볼 적마다 사랑하고 어여쁜 마음 가이 없어라.

부마가 궁에 가지 아니하고 부친 계신 ㉣ 외현에 있어, 조카 격석 등을 데리고 자더니, 하루는 최 씨를 보러 가니 소저가 부모 앞에서 한가지로 보는지라, 바라보매 아미에 시름 맺혔으니 더욱 기이 절묘하더라.

부마가 어여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 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니, 조금 있다가 가로되,

“거년에 포숙(鮑叔)*의 신(信)을 이르시기로, 복은 이리 못 잊어 자주 다니되 한 번도 나와 보지 아니코 대접치 아니하시니, 어찌 당초 언약을 저버림이 이 같으뇨.”

소저가 나직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때 우연히 한 말이 맞았으니, 첩은 포숙의 신이 있으려니와, 상공의 말과 같을진대 신후경*의 죽음을 달게 여기시나이까. 첩은 다만 빙채를 지키며 도장에서 늙을지라, 어찌 상공을 접화(接和)하리이까. 사생이 부모에게 있사오니 번거로이 자주 와 찾지 마소서.”

[중략 부분 줄거리] 지경은 옹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와의 만남을 최홍일에게 발각된다.

“네 언제 이르렀느냐.”

생(生)이 가로되,

“빙부*가 종시 허치 아니하시니, 아내 그리워 견디지 못하와 8월부터 월장할 계교를 내어, 날마다 다녀 스스로 금치 못하다가 오늘 이 옥을 보오니 빙부의 고집한 탓이로다.”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A]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옹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옹주를 개유하면, 네 부친과 내 주상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옹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루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옹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넌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옹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비할 바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 홍명화·홍상이 박빈을 체결(締結)*하여 필연 그옥한 흥계를 지을지라, 옹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옹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탈관직(削奪官職)이요, 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生)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공이 알고 불리 대책하고 옹주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옹주 어찌 모르리오. 부마 ㊸ 내당에 들어간 때 옹주 가로되,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이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희(蠱惑)하였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오.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완대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이 여김이 심하뇨.”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B] “내 할 말을 옹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옹주와 화락하리요. 옹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皇英)*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려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로다.”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포독불인: 사납고 독살스러우며 어질지 못함.

*친영: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함.

*포숙: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태부. 친구인 관중을 환공에게 천거해서 승상이 되게 했음.

*신후경: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담긴 중국 원나라 때의 「교홍전」의 남자 주인공.

*빙부: 장인.

*체결: 엮어서 맺음.

*황영: 아황과 여영은 자매지간으로, 순임금에게 시집을 가서 화목하게 지냄.

3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는 지경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경을 만나지 않았다.
- ② 옹주는 지경이 연화를 만나는 것을 알아채고는 임금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옹주를 만나보고는 박 귀인과 달리 포퓰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④ 최홍일은 임금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성내에서 서문 밖으로 이사를 했다.
- ⑤ 지경의 부친은 연화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지경이 옹주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3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설득하고 [B]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상대방에게 빠른 해결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고사(古事)를 근거로 상대방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지경이 연화를 만나서 반가움과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② ㉡은 지경이 옹주와의 혼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임금이 옹주의 부탁을 받고 지경을 별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 ④ ㉣은 지경이 옹주를 만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공간이다.
- ⑤ ㉤은 부마와 옹주가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윤지경전은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허구와 사실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중종, 귀인 박 씨, 복성군 등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런 방식은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 준다. 또한 권력을 내세워 위력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인물과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쟁취를 위해 고난을 무릅쓰는 남자 주인공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지경이 연화를 만나기 위해 월장하는 행동은 연화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쟁취를 통해 가문의 번영을 이루려는 지경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 준다.
- ③ 최홍일과 지경의 대화 과정에서 귀인 박 씨와 복성군이란 역사적 실존 인물이 거론되어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 준다.
- ④ 지경이 옹주와 화락하지 않고 혼례를 약속한 연인을 버리지 않는 태도에서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이미 혼례를 약속한 지경에게 위력으로 옹주와 혼례를 시킨 임금은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0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상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미확인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작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위성의 형상을 통해 인공위성의 기능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SLR(Satellite LASER Ranging) 장비가 쓰이며, 인공위성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응광학(Adaptive Optics) 장비가 쓰인다.

SLR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장비로서 망원경, 초정밀 시계, 레이저 송수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원경을 인공위성으로 향하게 한 다음, 레이저 송신부에서 레이저를 쏜다. 그 레이저가 인공위성에 반사되어 수신부로 돌아오면 초정밀 시계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인공위성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거리는 속력에 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SLR 장비와 인공위성 간의 거리는 레이저의 속력 c (광속 상수)에 왕복 시간을 곱한 값을 2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천구의 중앙을 지나는 인공위성에 반사되어 온 레이저의 왕복시간이 0.2초로 측정되었다면, SLR 장비와 인공위성의 거리는 $c \times 0.2\text{초} \times \frac{1}{2}$ 로 계산된다. 이렇게 구한 ‘거리’에 SLR 장비의 ‘위치 정보’와 망원경이 향하고 있는 ‘방향 정보’를 융합하여 인공위성의 위치를 구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오차가 있는 것이다.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대기로 인한 오차를 생각해야 한다. 빛은 매질의 밀도에 따라 속력과 파장이 달라진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A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을 ‘A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한다. 매질의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지며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레이저는 지구의 대기를 지나면서 속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레이저의 왕복 시간만으로 계산된 거리는 대기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는 수학적 모델인 대기 모델을 적용하여 수직적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인공위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SLR 장비를 사용했다면, 고배율 망원경으로는 그 형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고배율 망원경으로도 인공위성의 형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배율 망원경에 맺힌 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 주원인은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난류이다. 대기층의 하부인 대류권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공기들이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면서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인 난류가 만들어진다. 이 난류는 빛의 굴절에 영향을 준다. 난류를 통과하는 빛들은 방향과 속력이 제각각 달라진다.

파면은 특정한 시간에 파동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가상의 면으로서,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이다. 파면이 평면인 빛을 평면파라 하고, 그 파면을 평면 파면이라 한다.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하게 되는데, 난류를 만나기 전의 빛의 파면은 여전히 평면에 ㉡ 가깝다. 그러나 대류권에서 난류를 만난 빛은 불규칙 굴절을 하여 그 방향이 제각각 달라진다. 그런데 파면은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이므로, 이때의 빛의 파면은 평면이 아니게 된다. 이 빛을 왜곡파라 하고 그 파면을 왜곡 파면이라 한다. 이것이 ㉢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빛은 대류권의 난류를 통과하며 왜곡파가 되므로, 망원경으로 관측된 인공위성의 상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다. 적응광학 장비는 망원경에 광선분배기, 파면 센서, 데이터처리기, 제어기, 형상가변반사경 등이 추가된다.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에 대기권을 통과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형상가변반사경을 거쳐 광선분배기로 입사된다. 입사된 빛은 광선분배기에 의해 접안부와 파면 센서로 나뉘어 보내진다.

파면 센서는 들어온 빛의 파면이 왜곡된 정도를 측정한다. 파면 센서는 CCD*에 여러 개의 볼록 렌즈가 격자처럼 결합된 것으로서,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CCD에 볼록 렌즈의 수만큼 상으로 맺히게 된다. 들어온 빛이 평면파라면 CCD의 각 격자의 중심에 상이 맺히는데, 들어온 빛이 왜곡파라면 빛이 지나온

대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격자의 중심이 아닌 곳에 상이 맺히게 된다. 이때 중심에서 벗어난 방향과 정도를 분석하여 왜곡된 파면의 뒤틀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정보는 데이터 처리기를 거쳐 분석되고, 제어기는 분석된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형상가변반사경으로 보낸다. 형상가변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의 뒤에 구동기가 빼곡하게 달려 있는 것으로서, 각 구동기는 제어기가 보낸 전기적 신호에 따라 거울의 뒷면을 밀거나 당김으로써 거울을 변형시키게 된다. 왜곡 파면은 이렇게 변형된 거울을 통해 보정되고, 우리 눈은 보정된 상을 볼 수 있게 되어 흔들림이 없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복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형상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CCD: 전하결합소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쓰인다.

4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면 파면은 왜곡 파면과 달리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이다.
- ② SLR 장비는 망원경, 초정밀 시계, 레이저 송수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 ③ 대류권의 난류는 빛의 속력과 파장에 영향을 미쳐 파면을 왜곡시킨다.
- ④ 지상에서 인공위성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응광학 장비가 쓰인다.
- ⑤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하여 SLR 장비는 대기 모델을 적용한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기의 굴절률이 1보다 작으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 ② 대기의 굴절률이 1보다 크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 있다.
- ③ 대기에서의 레이저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빠르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 있다.
- ④ 대기에서의 레이저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길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 ⑤ 대기에서의 레이저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짧으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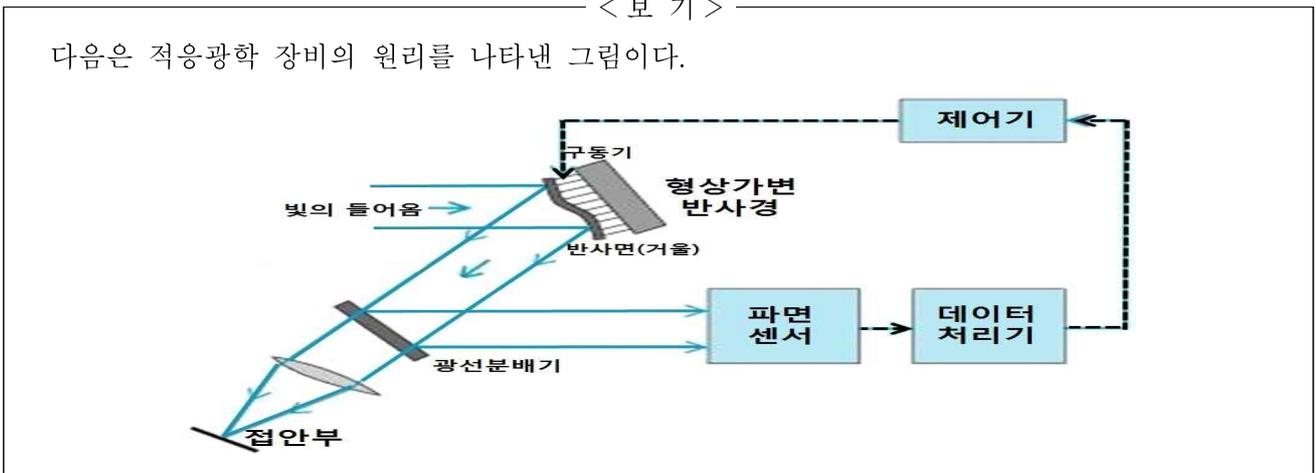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측자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 ② 대류권의 공기들은 그 특성이 균질하기 때문이다.
- ③ 빛의 동일 위상을 연결한 선이 평면이기 때문이다.
- ④ 빛이 거쳐 온 난류의 굴절률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⑤ 대기의 굴절률이 달라져도 빛의 파면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43. ㉢의 문맥적 의미가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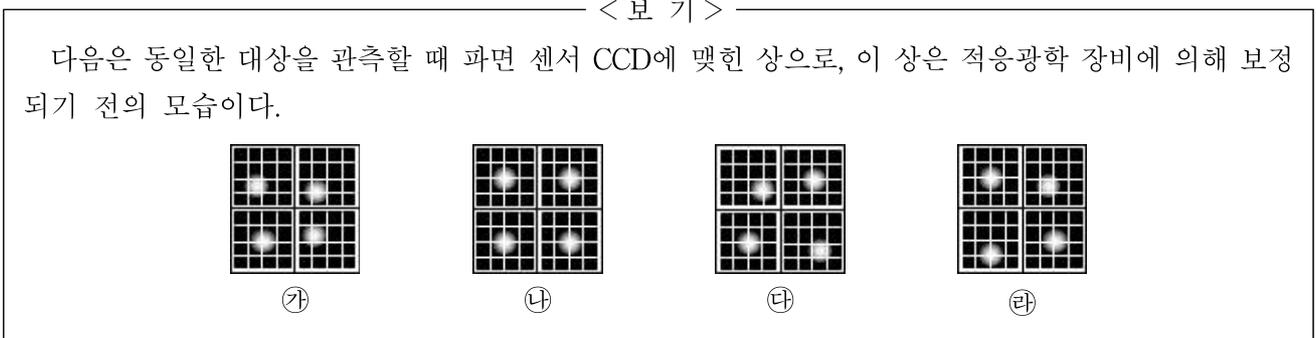
- 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가깝다.
- ② 수형이와 만수는 가까운 친구이다.
- ③ 그 사람은 행동이 어린이에 가깝다.
- ④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예정이다.
- ⑤ 주말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형상가변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광선분배기는 빛을 접안부와 파면 센서로 나누어 보내 준다.
- ③ 파면 센서는 여러 개의 볼록 렌즈와 CCD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데이터처리기에서는 파면 센서의 정보를 조합하여 보정된 상을 보낸다.
- ⑤ 제어기는 데이터처리기의 정보를 받아 구동기에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4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태가 지속된다면 파면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과 달리 ㉡는 평면파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③ ㉡에서 ㉢로 달라진다면 빛의 파면이 바뀐 것이겠군.
- ④ ㉢는 ㉡에 비해 파면이 뒤틀린 정도가 심하겠군.
- ⑤ ㉢와 달리 ㉣는 왜곡파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관

2020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영역(공통) 답안지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④	⑤	①	⑤	②	③	②	④	④	①	④	⑤	③	④	⑤
문항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①	③	③	①	②	①	③	③	⑤	④	③	④	②	②	④
문항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정답	②	⑤	⑤	④	①	⑤	⑤	③	②	①	②	④	③	④	⑤

제 1 교 시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파는 손녀의 오늘따라 유별난 친절이 거북하다 못해 슬그머니 심통이 난다. ㉠ 흥, 내가 미국을 가게 되니까 너도 별수 없이 나에게 아침을 떠는구나, 누가 모를 줄 알구…… 노파의 소견머리는 고작 이쯤밖에 안 움직인다. 그만큼 노파는 식구들의 지청구에만 익숙해 있다.

제 에미를 닮아 새침하고 곱살스러운 데라곤 손톱만큼도 없던 손녀딸년이 할머니 서울 구경을 제가 맡고 나선 것도 수상한데 박물관에 들어오자 등에 손을 돌려 부축까지 해 주며 저것은 범주사 팔상전을 본판 것, 저것은 불국사의 어디 어디를 본판 것 하며 열심히 설명까지 하자 노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거니와 친절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서투르다. 손녀가 환성을 지르며 손가락질하는 데를 바라 보며 집 한번 으리으리 잘 지어 놨다 싶더라도, 흥 저까짓 거 미국엔 백 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하다는데 곧 미국 할머니가 될 내가 저까짓 것에 놀랄까 보냐고 콧방귀를 툐다.

머리숯하며 몸집하며 이목구비가 자리 잡은 간살하며 어디 한 군데 넉넉한 데라곤 없이 웅색하고 박하게만 생긴 노파가 남을 알잡을 때만은 갑자기 의기양양하고 되바라지며 밝고 귀여운 얼굴이 된다. 꼭 불이 켜진 꼬마전구같이. ㉡ 요새 이 꼬마전구는 꺼져 있는 동안보다 켜져 있는 동안이 훨씬 많다.

노파는 곧 미국을 가게 모든 수속이 다 끝나 있다. 딸의 덕에. 노파에겐 이 딸의 덕이란 게 암만해도 진수성찬 끝에 구정물 마신 것 모양 꺼림칙했지만 아들 넷 중 맏이만 빼놓고 세 아들이 다 미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고개가 뺏뺏해지며 당당해진다. 노파에게 미국이란 우선 먹을 것, 입을 것이 지천인 부자 나라도 되었지만, 서울 장안만 한 넓이의 고장도 되어서 딸하고 수틀리면 아들네로, 그 아들하고도 틀리면 다음 아들네로 몽당치마에 바람을 일으키며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노파의 자식들 중 미국에 있는 건 딸 뿐이고, 둘째 아들은 서독(西獨)에, 셋째 아들은 브라질에, 넷째 아들은 괌에 가 있다. 세 아들이 어찌다 일이 잠깐 빗나가 지금 미국 아닌 고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당초의 목적은 미국이었고 미국으로 이민 갈 연줄을 찾아 눈에 핏발이 서 동분서주할 때부터 노파는 “미국, 미국, 미국에만 갈 수 있으면!” 하는 아들들의 잠꼬대 같은 탄식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고, 그러는 사이에 노파에게 미국이란 가기는 힘들지만 갈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금시발복*의 땅이란 고정관념이 뿌리박았다.

(중략)

한 젊은이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하고 상냥하게 말을 건다.

“㉢ 그 뭐라나, 미국의 어디메드라? 참, 쌍포리코라던가.”

“네, 샌프란시스코요. 저도 그리로 가는데요.”

젊은이가 광대같이 우스꽝을 떨며 노파를 껴안았다. 노파도 반가워서 젊은이 손을 덥석 잡았다가 놓으면서,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러구 있을 게 아니라 버스 떠나기 전에 식구들에게 든든한 동행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 늙은이 혼자 떠나보내고 발길들이 안 돌아설 텐데.”

노파는 허겁지겁 버스를 내린다. 노파는 그냥 가족들을, 특히 길남이를 다시 보고 싶을 뿐이다. 버스에서 내린 노파는 송영대 밑으로 달려가 송영대를 쳐다보며 악을 쓴다.

“애들아, 마침 쌍포리코까지 같이 갈 동행을 만났다. 아주 친절한 젊은이야. 내 걱정들은 마라.”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다. 낯선 사람들이 킬킬거릴 뿐이다. 다시 쳐다봐도 송영대에 밀집한 사람 중 낯익은 얼굴은 하나도 없다. 벌써 환갑집으로 가버린 모양이다.

㉣ 다시 확인하고 싶으나 시야가 자꾸만 부엌에 흐려져 그제 여의치 않다. 별안간 송영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져서 숨듯이 다시 버스에 오른다. 버스를 내려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동안 내내 노파는 혼돈 속을 가듯 눈앞이 지척을 분간 못 하게 부엌고 의식조차 흐리멍덩하다. 아까의 젊은이가 노파

를 부축해 주려다 말고 탄 젊은이들과 섞여서 시시덕댄다.

마침내 기체가 이륙하는 것을 노파는 심한 충격과 함께 의식한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노파 하나만의 것인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다.

몇 백 년쯤 묵은 고목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몽땅 뽑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받는 고목의 충격이 바로 이러하리라. 노파의 의식이 비로소 혼돈을 헤치고 뿌리 뽑힌 고목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한다.

비행기 속의 젊은이들은 노파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을 뜨는 마당에 일말의 애수조차 없이 다만 기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도 동류의식을 느낄 수 없다. 노파는 외롭다.

“할머니 울잖아? 애기같이, 우리도 안 우는데. 울지 마. 우리 같은 처지야.”

아까의 젊은이가 광대 같은 표정으로 어리광을 떨며 노파를 웃기려 든다.

㉠ 하긴 저들도 뿌리 뽑혔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들은 묘목이다. 어디에고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묘목이다. 그러나 난 틀렸어. 난 죽은 목숨이야.

노파는 노파의 아들들이 이를 갈며 싫어했고 진저리를 치며 놓여나기를 갈망했던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안다. 노파는 마치 자기 시신(屍身)을 보듯 이 숨막히는 공포로 뽑혀 나동그라진 거대한 나무와 지상으로 노출된 수만 가닥의 수근(樹根)이 말라비틀어지는 참담한 모습을 환상하며 심장을 쥐어짜듯이 서럽게 운다.

- 박완서, 「이별의 김포공항」 -

* 금시발복(今時發福): 어떤 일을 한 뒤에 복이 곧 돌아와 부귀를 누리게 됨.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에 따라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공간의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상황의 원인을 역순행적으로 추리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속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대상과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1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손녀’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파’의 심리를 독백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전과 달라진 ‘노파’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우스꽝을 떠는 ‘젊은이’의 허위의식을 비꼬고 있다.
- ④ ㉡: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슬퍼하는 ‘노파’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 ‘젊은이’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이륙 상황에서 ‘노파’가 느끼는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통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세계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희망이 과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질 때 맹목적인 동경이 된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현실마저도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런 인간의 경험과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①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험과 심리를 ‘노파’의 미국행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있군.
- ②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으리으리 잘 지어 놨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노파’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③ ‘미국에만 갈 수 있으면!’ 하고 ‘잠꼬대 같은 탄식 소리’를 한 ‘노파의 아들들’은 맹목적으로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군.
- ④ ‘노파’가 ‘뿌리 뽑힌 고목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노파’가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마저 사랑하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군.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소는 우주의 88%를 차지할 만큼 많고, 연소될 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켓 연료로까지 이용된다. 그러나 수소를 일상생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지구 대기 속에 수소 기체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가장 간단한 원소로 되어 있는 수소 기체가 매우 가벼워 지구의 대기 밖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상의 수소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는 대부분 물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혼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 분해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함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점을 고려해 ㉠ 식물의 광합성 시스템을 모방한 인공 광합성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햇빛을 이용하면 보다 적은 에너지로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 광합성은 엽록소가 NADPH와 ATP를 생성하는 명반응과 그것들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암반응이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엽록소 속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엽록소는 물을 분해해 전자를 보충한다. 즉 물(H₂O)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O)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고, 수소는 전자(e⁻)와 수소 양이온(H⁺)으로 분해된다. 엽록소는 분해된 수소 양이온과 전자를 받아들인 다음 NADP⁺와 결합시켜 NADPH라는 효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편 엽록소에서 빠져 나온 전자는 빛 에너지가 전환된 화학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까지가 암반응 과정을 위해 필요한 명반응 과정이다. 암반응에서는 NADPH가 NADP⁺와 전자,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되는데, NADP⁺는 다시 명반응 과정에서 NADPH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전자와 수소 양이온은 이산화탄소(CO₂)와 결합해 최종적으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ATP가 ADP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충당하는데, 생성된 ADP는 명반응 과정에서 ATP를 생성하는 데 재료가 된다.

㉔ 수소를 생성하는 인공 광합성 시스템은 포도당 대신에 수소 기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공 광합성 시스템인 전지형 시스템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 수소 양이온을 생성하는 광전극과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환원 전극이 물속에 있고, 두 전극이 전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전극은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데, 광전극은 n형 반도체로, 환원 전극은 p형 반도체로 되어 있다. n형 반도체는 (-) 전하인 자유 전자가 (+) 전하인 정공보다 많고, p형 반도체는 정공이 자유 전자보다 많은 반도체이다. 빛 에너지를 받으면 광전극에서 자유 전자와 정공이 더욱 많이 생기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A] 자유 전자들은 전선을 따라 환원 전극으로 이동한다. 광전극에 남아 있는 정공들은 광전극의 표면에 물려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 물을 분해한다. 그 결과 물의 산소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고, 수소 양이온은 물속을 떠돌게 된다. 한편 환원 전극의 표면에서는 광전극으로부터 온 자유 전자를 이용해 수소 양이온을 환원시킨다. 즉 물속에 떠돌다 환원 전극의 표면에 도달한 수소 양이온이 자유 전자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때 수소 기체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는 분리막이 있어, 광전극에서 만들어진 수소 양이온이 그것을 투과하면 광전극에서 반응할 수 없도록 하고, 생성된 수소 기체가 광전극 쪽으로 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공 광합성 시스템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태양 전지를 별도로 장착한 전지형 인공 광합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약 12%까지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을 높였다. 한편 과학자들은 촉매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전극에서 생긴 자유 전자와 정공은 분리되자마자 곧바로 다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는 자유 전자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원 반응에 필요한 자유 전자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광전극의 자유 전자와 정공들이 재결합하기 전에 산화, 환원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반도체의 기능과 촉매의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지형 광합성 시스템의 전극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료가 고가이고 그 공정 비용 또한 높다. 좀 더 싼 값에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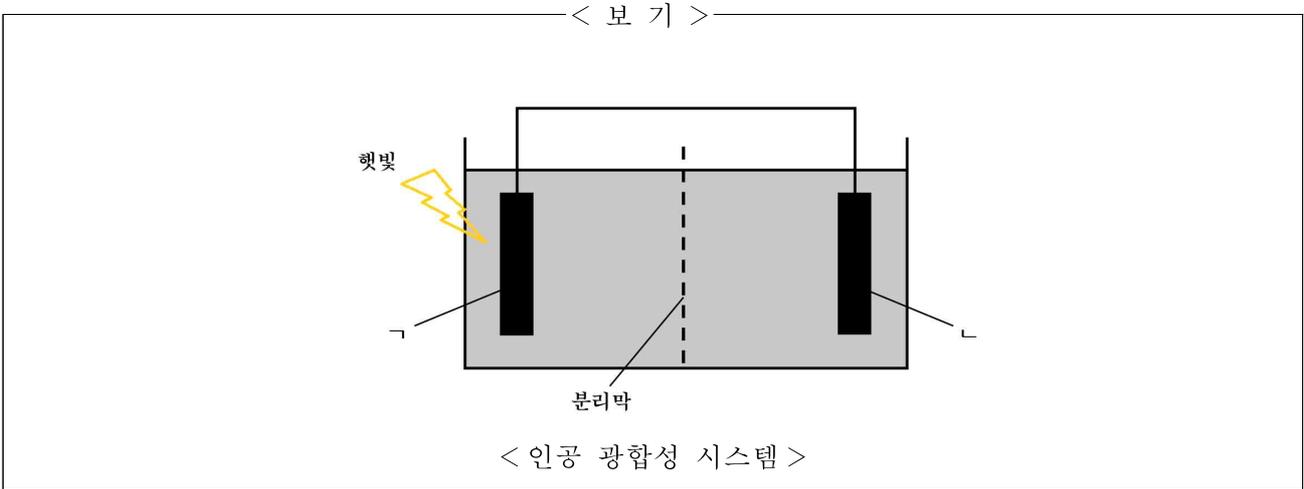
19. 밑글을 통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수소가 지구 대기 속에 존재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전지형 인공 광합성 시스템 개발에 있어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④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인공 광합성 연구가 자연의 광합성 원리 연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두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산물로 배출된다.
- ② ㉠, ㉡ 모두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는 수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용되지 않는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유기물을 생성한다.
- ⑤ ㉠의 염록소에서 방출된 전자와 ㉡의 정공과 분리된 전자는 같은 역할을 한다.

[21 ~ 22]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정공과 자유 전자가 햇빛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겠군.
- ② ㉡의 주요 기능은 물을 분해하는 것이겠군.
- ③ ㉠의 자유 전자들은 ㉡으로 이동하겠군.
- ④ ㉠에서 생성된 수소 양이온이 ㉡에서는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되겠군.
- ⑤ ㉠은 자유 전자가 많은 반도체로, ㉡은 정공이 많은 반도체로 만들어졌겠군.

22. <보기>의 '분리막'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소 기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② 광전극과 환원 전극의 공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③ 수소 기체 생성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④ 자유 전자를 더욱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로군.
- ⑤ 빛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한 장치로군.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졸을 따라 한림이 오자 최 지부는 고발장을 꺼내 들고 죄목에 대해 물었다. 범한은 이미 계단에 우두커니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다 듣고 난 한림은 자신이 모함에 빠진 것을 알고는 마음이 아팠다. ‘이건 운명이야, 운명! 내가 허위로 자백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형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림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이미 모두 드러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 지부가 불쌍하여 탄식하면서 한림에게 말했다.

“죄인의 사정이 참 딱하구려. 어머니가 이미 고발장을 냈으니 효자 된 도리로 어떻게 발명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한나라 때 동해의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죄 없이 허위 자백하는 바람에 처형된 뒤 삼 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태수 된 자는 후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었소. 지금 나도 그렇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소?”

그러자 범한이 큰소리로 외쳤다.

“㉠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알아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면 벌을 줄 따름이지, 무슨 연유로 이 사람을 달래어 그 말을 바꾸려 하십니까?”

최 지부가 크게 화를 내며 범한을 끌어내리고 서릿발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천한 네 놈은 범가이면서 무슨 일로 화씨 집안일에 간섭하여 이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그러고는 그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하고 한림은 일단 옥에 가두어 두었다. 범한은 수종의 은냥을 내서 옥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회를 보아 한림을 죽이려고 했다.

한편, 한림의 유모 계화는 심 씨에게 쫓겨난 후 고을의 부자 유이숙의 아내가 되었다. 계화는 한림이 변을 만나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먹지도 않더니, 화씨 집 문에서 자결하여 그 원통함을 밝히고자 했다. 유이숙이 이런 부인을 의롭게 여겨 말했다.

“내가 한번 가보리다.”

잠시 후에 유이숙이 돌아와서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 한림의 옥 같은 용모를 보니 친하의 군자였소. 사내대장부가 되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금전을 많이 내어 물 쓰듯 뇌물을 주고 계화는 직접 옥중에 음식을 대었는데, 유이숙이 옥문 옆에 앉아 있다가 독이 있는지 먹어 본 후에야 들었다. 그러니 범한의 은화는 쓸모없이 허비된 셈이다. 옥문의 안팎에 흑시라도 범한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흰 몽둥이와 붉은 작대기가 구름에 비 오듯 쏟아지니 범한은 간담이 서늘하여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최 지부는 한림의 사건을 지나 깨나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도어사 하춘해가 절강을 돌아보고 돌아가다가 소흥을 지나게 되었다. 최 지부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 어사를 맞이했다.

“저희 고을에 의옥(疑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차에 다행히 나리께서 오셨으니 한번 나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고발장을 꺼내 보였다. 어사가 겨우 몇 줄 읽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른바 화진이라는 사람은 장원으로 급제해 한림학사가 된 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사는 모두 읽고 나서 팔을 걷어붙이며 한탄했다.

“지난번 언무경이 이 자를 불효하다고 탄핵했을 때 우리는 이 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지금 이 고발장을 보니 과연 한림은 흉특한 자였구려. 내가 마땅히 법이 바르게 서도록 하겠소. 끌고 오라 하시오.”

이에 한림이 뜰에 이르렀다. 어사는 그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전처럼 대답하는 한림의 옥 같고 별 같은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그렇그렇하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가만히 보던 어사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타났다. ‘군자로구나! 기린이 때를 만나지 못해 서상의 액(厄)*을 만났듯 곤경에 처했구나!’ 그러고는 최 지부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시오.”

그날 밤 어사는 ㉠ 직접 쓴 편지를 시종들던 사람 왕겸을 시켜 몰래 화진에게 전하게 했다.

(중략)

한림은 다 읽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에 선친께서 대학사 하언의 충성을 칭찬하셨지. 지금 그 아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보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겠어. ㉡ 아, 불초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왕겸에게 말했다.

“하 어사 나리께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생각해 주시고, 열 줄 글을 보내시어 이렇게 간곡하게 알려주시니, 아둔하고 사나워서 사람의 도리로 꾸짖기 부족한 저라도 어찌 일호 감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인의 죄명은 이미 드러났고 국가의 법률이 지엄하니, 밝은 태양 아래서 차마 실상을 속이고 말을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왕겸이 하 어사에게 돌아가 이 말을 전하자 어사가 감탄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효성스럽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동요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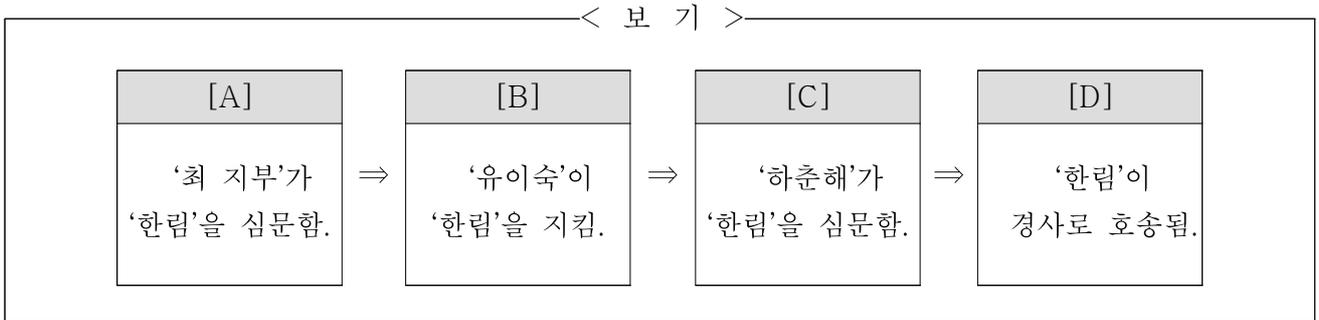
하 어사는 왕겸을 보내 옥중의 한림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리고 ㉢ 수레를 빨리 몰아 경사로 가면서 최 지부에게 알려두었다.

“이 사건은 성급히 판결해서는 안 되니 황제께 아뢴 후에 처리하려고 하오. 최 지부께서는 옥리들을 잘 단속하여 형벌로 죄인이 죽거나 자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그때 범한은 최 지부가 한림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고 또 유이숙 때문에 감히 독약을 먹일 수도 없자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리하여 즉시 한 필 말을 타고 밤새도록 서울로 달려가서 엄승에게 뇌물을 쓰니, 엄승은 소흥부 죄인을 경사로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유이숙과 왕겸은 한림을 보호하여 길을 나섰다. ㉣ 계화가 말 앞에서 통곡을 하며 배웅하자 한림이 말을 세우고 눈물을 흘렸다. 길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서상의 액(厄): 기린이 노나라 사람, 서상에 의해 잡힌 일.

23. <보기>는 윗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부터 [D]까지의 흐름은 시간의 순차적 순서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② [A]에서 ‘범한’은 ‘한림’을 처벌받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A]와 [B] 사이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한림’을 죽이려 하고 있다.
- ③ [A]에서의 ‘최 지부’와 마찬가지로 [C]에서의 ‘하춘해’도 ‘한림’의 자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④ [B]는 ‘계화’의 ‘한림’에 대한 정성이 계기가 된 것으로, [D]에서 ‘유이숙’이 ‘한림’을 따라 경사로 가는 길에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⑤ [C] 이후에 ‘하춘해’는 편지를 보내 ‘한림’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한 뒤, 차선책으로 [D]의 일을 주선하여 ‘한림’의 옥사를 해결하려 하였다.

2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범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 ‘유이숙’이 결심을 하는 데에 ‘용모’에 대한 평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 ‘한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춘해’의 처분을 따르려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④ ㉣: ‘하춘해’가 ‘한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림’과 ‘계화’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5. ㉠을 쓴 의도를 고려할 때, 그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의 지금 행동은 나의 심금을 움직이고 있다.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덕행을 쌓아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
- ② 고발장의 내용과 달리 당신의 인품은 참으로 아름답다. 당신을 잃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사실대로 말해 달라.
- ③ 당신이 죄의 대가를 혼자 지려는 모습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 비록 강상의 죄를 범했지만 참 아쉽다.
- ④ 당신은 현재 옥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의 고민을 덜어 주기 바란다.
- ⑤ 어머니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신은 현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어머니가 더 괴로울 수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창선감의록」은 착한 사람은 예외 없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구조를 통하여 효와 우애라는 중세적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화춘과 화진(한림) 사이의 갈등 즉, 무능한 가장인 형(화춘)과 그로부터 가문을 지키려는 동생(화진)의 갈등이다. 그 외 선한 인물을 도와주려는 조력자들과, 악한 인물들과 결탁한 인물들의 대결 구도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효와 우애를 중시하는 화진의 태도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문을 번영케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① ‘계화’가 ‘한림’의 옥중 음식을 마련하고 ‘하 어사’가 ‘왕겸’에게 지시하는 데서, 이들이 ‘한림’을 도우려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어.
- ② ‘한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나서도 ‘허위로 자백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중세적 윤리 의식이 얼마나 내면화되었는지 깨달았어.
- ③ ‘범한’과 ‘엄승’은 ‘한림’의 ‘어머니와 형’과 함께 악한 세력에 속하여 선한 인물을 도우려는 인물들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듯해.
- ④ ‘최 지부’가 ‘범한’을 꾸짖어 내쫓고 ‘유이숙’이 ‘범한’으로부터 ‘한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려는 ‘한림’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이군.
- ⑤ ‘한림’이 ‘최 지부’의 설복에도 꿈적하지 않고 ‘하춘해’의 설복에도 자신의 뜻을 굳건히 유지한 것은, 개인보다는 가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겠군.

[27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 예측하고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핵심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서 비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 분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여 합산하면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할인율을 r 이라고 할 때 1년 후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현재가치} = \frac{\text{1년 후 미래가치}}{1+r}$$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들 수 있다.

순현재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를 뺀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수록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 당 발생한 편익을 가리킨다.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의 값을 갖는 순현재가치나 1보다 큰 편익-비용비가 사업 수행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할 자금이 ㉠ 제한된 상태라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이 투자할 자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는 모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업 선택의 기준이다. 다만 전자가 비용을 뺀 편익의 규모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에 무게를 둔다. 따라서 사업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총 3개의 후보지 A, B, C를 대상으로 저수지 건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A > B > C$ 순으로 크게 나온 반면 편익-비용비는 $C > B > A$ 순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에 의한 우선순위와 편익-비용비에 의한 우선순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편익의 규모는 크지만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이 낮거나, 반대로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은 높지만 편익의 규모가 작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용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비는 모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공공사업이 초기에 비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다는 점을 ㉢ 감안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낮아지므로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는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자본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공사업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처럼 높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이유
- ②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할인율의 관계
- ③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공공사업의 유형
-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유
- ⑤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산출하는 방법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정부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A, B, C, D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편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가 배정한 총예산은 2,000이고 비용은 도로 건설비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제시된 편익과 비용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다.)

도로	편익의 합계	비용의 합계
A	500	250
B	700	400
C	1,000	800
D	1,500	1,000

- ① 만약 정부의 총예산이 2,450으로 증가한다면 A, B, C, D를 모두 건설할 수 있겠군.
- ② 가용 예산과 순현재가치를 고려했을 경우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 ③ 비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D보다 B를 먼저 건설해야 하겠군.
- ④ 단위 비용 당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A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군.
- ⑤ 만약 C의 편익이 300만큼 줄어든다면 편익의 규모로 볼 때 C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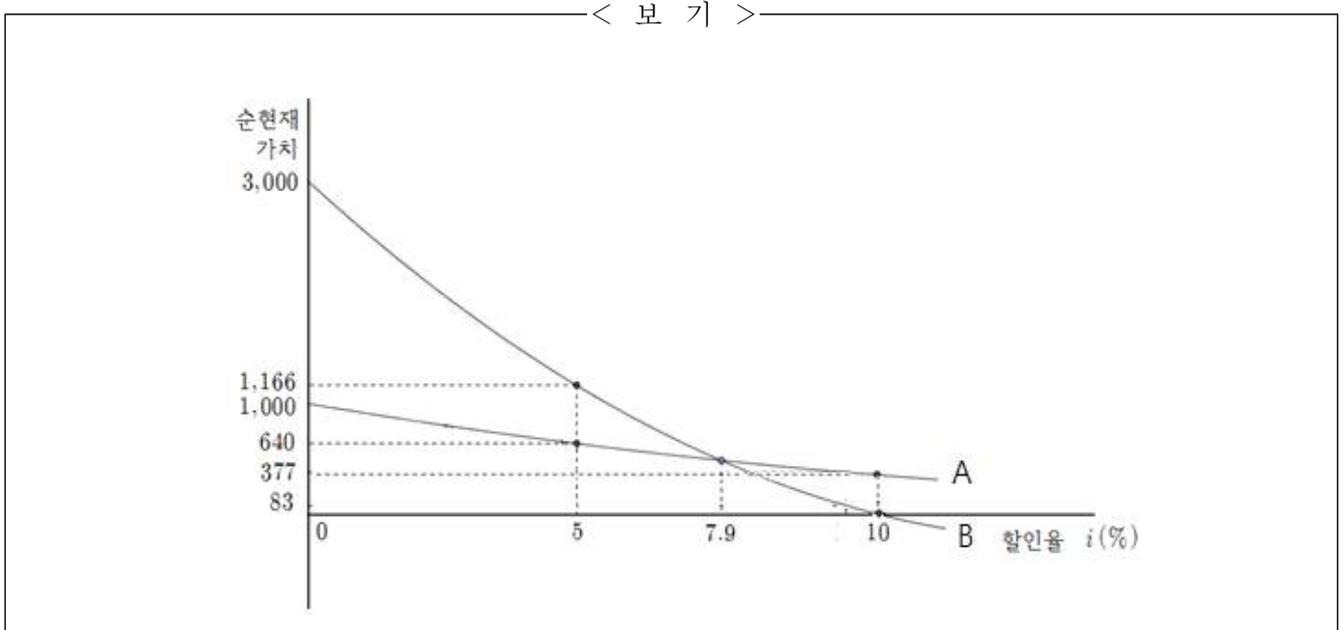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① 비용편익분석을 민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요.
- ② 공공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 ③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요.
- ④ 공공사업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저평가될 수 있어요.

30. <보기>는 할인율 변화에 따른 A, B 두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단, A, B 두 사업의 비용은 동일하며, 제시되지 않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A와 B의 순현재가치는 높아진다.
- ② 할인율이 0%일 때 편익-비용비는 A가 B보다 높다.
- ③ 할인율이 5%일 때 A사업이 B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④ 할인율이 7.9%일 때 B사업이 A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⑤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면 B의 편익-비용비는 1보다 작다.

3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② ㉡: 갈라져 흩어짐.
- ③ ㉢: 하지 못하도록 함.
- ④ ㉣: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⑤ ㉤: 참고하여 생각함.

[32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풀뚝을 수뚝을 땅을

바윗덩이를 무르녹이는 열기가 쏟아져도

오직 네만 냉정한 듯 차게 흐르는

강아

천치의 강아

국제철교를 넘나드는 무장열차(武裝列車)가

너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깰듯 고동이 높을 때

언덕에 자리 잡은 포대(砲臺)가 호령을 내려

너의 흐름에 선지피를 흘릴 때

너는 초조에

너는 공포에

너는 부질없는 전율밖에

가져본 다른 동작이 없고

너의 꿈은 꿈을 이어 흐른다

네가 흘러온

흘러온 산협에 무슨 자량이 있었더냐

흘러가는 바다에 무슨 영광이 있으랴

이 은혜롭지 못한 꿈의 향연을

전통을 이어 남기려는가

강아

천치의 강아

너를 건너

키 넘는 풀속을 들춰처럼 기어

색다른 국경을 넘고자 숨어 다니는 무리

맥 풀린 백성의 사투리의 향려(鄉閭)*를 아는가

더욱 돌아오는 실망을

묘표(墓標)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을 아느냐

㉠ 강안(江岸)에 무수한 해골이 뒹굴어도

해마다 계절마다 더해도

오직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강아

천치의 강아

- 이용악, 「천치(天痴)의 강(江)아」 -

* 향려: 시골 마을.

(나)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선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쭉쭉풀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언덕
 꽃상여
 때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설움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

(다)

오늘 한강 하구(河口)에 서서 당신의 강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골짜기와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숭한 역사를 쌓아가는 살아 있는 물입니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리고 댐에 갇히면 뒷물을 기다려 다시 쏟아져 내리는 치열한 물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강물과는 달리 바다는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 물입니다. 바다로 나와 버린 물은 아마 모든 의지가 사라져 버린 물의 끝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엽서를 들고 먼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통일 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굽이굽이 천 리 길을 이어온 한강과 마식령산맥에서부터 오백 리 길을 흘러온 임진강이 서슴없이 서로 몸을 섞으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길을 따라 강화도의 월곶리에 있는 연미정(燕尾亭)으로 왔습니다. 마침 밀물 때를 만난 서해의 바닷물이 강화 해협을 거슬러 이 두 물을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강심에는 인적 없는 유도(流島)가 적막한 DMZ 속에서 잠들어 있고 기다림에

지친 정자가 녹음 속에 늪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안(江岸)을 따라 강화의 북쪽 끝인 철산리(鐵山里)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보이고 예성강물이 다시 합수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면 이곳은 남쪽 땅을 흘러온 한강과 휴전선 철조망 사이를 흘러온 임진강, 그리고 분단 조국의 북녘 땅을 흘러온 예성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파란만장한 강물의 역사를 끝마치고 바야흐로 바다가 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곳입니다. 멀리 유서 깊은 벽란도(碧瀾渡)의 푸른 솔이 세 강물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철산리에서 바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띄웁니다.

당신이 내게 강물을 생각하라고 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 엽서를 띄웁니다. 바다로 나온 물은 이제 한강도, 임진강도, 예성강도 아닌 바다일 뿐입니다. 드넓은 하늘과 그 하늘의 푸름을 안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강물을 사랑하는 까닭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강물은 고난의 시절입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되 얹어지고 갇히고 찢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한강과 임진강·예성강 유역은 삼국이 서로 창검을 겨누고 수없이 싸웠던 전장(戰場)입니다. 지금도 ㉠ 임진강은 휴전선 철조망에 옆구리를 활퀴인 몸으로 이곳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곳 철산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암울한 강물의 시절도 그 고난의 장을 마감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리는 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됩니다. 달려야 할 목표가 없다가보다 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부질없었던 강물의 시절을 뒤우치는 각성의 자리이면서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 시야를 열어나가는 조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해 그렇게 달려왔을 뿐입니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물이고 평화로운 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로 오르는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를 회복하고 청천 하늘의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최후의 목표로서의 평화입니다.

- 신영복, 「철산리의 강과 바다」 -

3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를 구체화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꿈과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과 달리 ㉡은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다짐하는 공간이다.
- ⑤ ㉡과 달리 ㉠은 과거의 삶에 대한 애착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930년대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들은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주해 갔는데, 이를 가장 잘 목격할 수 있었던 지역이 두만강변이었다. 이용악은 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노출된 유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 그 자신 또한 가난과 상실로 얼룩진 가족사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을 개인적 비애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 않고 비판적 안목을 통해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 ① 2연의 ‘무장열차’, ‘포대’가 가져오는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의 해소를 위해 3연에서 ‘너’는 ‘전통’을 이어 남기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의 ‘선지피를 흘릴 때’라는 처참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마주했던 절망적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 ③ 3연의 ‘자랑’, ‘영광’은 4연의 ‘국경을 넘고자 숨어 다니는 무리’에서 연상되는 유이민의 비참함과 대비되고 있다.
- ④ 4연의 ‘키 넘는 풀속’을 기어가는 ‘들쥐’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한반도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
- ⑤ 4연의 ‘묘표(墓標)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에도 불구하고 5연에서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35.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2연에서는 화자가 살아가려 했던 삶의 모습을 ‘기러기’에 빗대어 표현하였군.
- ③ 3연과 4연에서는 인간의 삶과 자연 현상을 대비함으로써 자연의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군.
- ④ 5연에서는 ‘꽃상여’, ‘떼과부’와 같은 시어를 통해 서글픈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군.
- ⑤ 6연에서는 1연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되어 화자의 내면이 강조되어 전달되는군.

3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이 수필의 글쓴이는 감격적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차곡차곡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서술할 뿐 아니라 독자와의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소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을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격이 독자의 감격으로 전이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봅시다.

학생 1 : 글쓴이가 ‘통일 전망대 → 연미정 → 철산리 언덕’ 순으로 장소를 옮기며 ‘강’의 흐름에 주목하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어요.....㉠

학생 2 : ‘철산리’에서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을 ‘유서 깊은 벽란도의 푸른 솔’이 ‘배웅’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끝마치는 데에 따른 감회를 부각하고 있는 듯해요.....㉡

학생 3 : 글쓴이가 ‘당신’에게 엽서를, 그것도 ‘마지막’ 엽서를 띄우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에는 독자인 ‘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니 글의 내용이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어요.....㉢

학생 4 : ‘강’을 ‘치열한 물’에 빗대어 강한 의지를 지닌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대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여 ‘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다각적으로 느껴졌어요.....㉣

학생 5 : ‘강물’과 ‘바다’에 대한 ‘당신’과 ‘나’의 대조적 인식이 ‘낮은 곳을 지향하는’ ‘강물’과 ‘흰 구름으로 승화하는’ ‘바다’와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잘 느껴졌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학을 지배 이념으로 수용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성리학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자 성리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성리학의 핵심 사유 체계였던 ㉠ 주희의 ‘이기론(理氣論)’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사상을 접한 조선 후기의 학자들은 기존의 사유 체계의 변화를 ㉡ 도모했다.

주희의 이기론은 존재의 근원과 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사유 체계였다. 존재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는 ‘이(理)’이고, 각 개체가 고유성을 띠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기(氣)’이다. ‘이’는 만물이 공유하는 존재론적 근거로서 모든 개체에 동일하지만, 개체가 갖고 있는 ‘기’는 서로 다르다. 만물은 선형적인 ‘이’와 ‘기’가 결합한 형태로만 존재한다. 또한 ‘성리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곧 ‘성[본성]’이다.

위와 같은 주희의 이기론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는 정약용이었다. 그는 ‘부여된 ‘이’는 동일하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물은 차이가 난다.’는 주희의 생각은 ‘개체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개체이므로 만물은 다른 종류의 개체로 윤회한다.’는 불교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다. 즉, 주희가 불교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유학 안에 갖추려고 고민하였는데, 그런 고민을 거쳐 마련한 성리학적 틀이 불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비판이었다. 실제로 주희의 ‘이기론’에는 불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정약용은 ‘유형한 물질’과 ‘무형한 정신’의 이원 구도로 세계를 인식했는데, ‘유형한 물질’은 무목적적으로 움직이는 ‘기’의 지배를 받고, ‘무형한 정신’은 ‘기’의 무목적적인 움직임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형한 물질’인 육신과 ‘무형한 정신’인 ‘이성 능력’이 오묘하게 합하여 인간이 형성되는데, ‘이성 능력’에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이러한 ‘이성 능력’은, 사물이나 짐승에게서는 찾을 수 없기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이’가 ‘이성 능력’도 ‘자유 의지’도 없는 선형적 생성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기’뿐이고, ‘이’는 실체에 딸린 속성에 ㉢ 불과하므로 ‘이’는 ‘기’가 드러나야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주희의 ‘이기론’에서 ‘기’는 정약용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는 개념적으로 축소되어 ‘이’ 중심의 이기론은 이론적 틀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약용의 생각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신학(神學)을 전파하기 위해 저술한 『천주실의』를 읽었는데, 여기에는 ‘유형한 물질’, ‘무형한 정신’, ‘자유 의지’ 등에 해당하는 개념뿐 아니라 주희의 ‘이’가 정신적 실체가 될 수 없다는 마테오 리치의 생각도 함께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마테오 리치가 의존한, 현상에 대한 인식적 틀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약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왔다면, 최한기는 당시 조선에 ㉤ 유입된 서양의 근대적 자연관에 의지하여 ‘이기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는 ‘기’ 밖이 아니라 ‘기’ 가운데서 구해야 미루어 알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라는 법칙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접근하지 말고 ‘기’라는 현상 세계에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경험주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한기에게 ‘기’는 일종의 에너지로서, 자발적으로 운동하며, 갖가지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되어 측정 가능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최한기의 생각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한다고 본, 중국 철학자 장재(張載)의 주장과도 유사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뉴턴의 ‘에테르’ 가설과도 연관된다. 19세기 말에 그 존재가 부정되었지만, 에테르는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 우주에 가득 존재하는데, 이것이 응결되어 구체적인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뉴턴은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희는 현상적 측면의 근원으로 ‘이’를 제시하여 ‘이’의 선형성을 강조했는데, 최한기는 ‘이’의 선형성을 부정하고 ‘이’를 ‘기’의 내재적 법칙성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의 운동 법칙, 인식의 원리 및 판단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최한기의 사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남아 있었다.

정약용과 최한기와 같이 ‘이기론’의 한계성을 절감한 ㉠ 조선 후기 학자들은 서양의 사상을 접하고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주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주희의 핵심 범주인 ‘이·기(理氣)’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희의 개념적 틀은 상당수의 학자들의 이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이기론’에서 ㉡ 탈피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절반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주희의 이기론은 불교의 논리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② 주희는 개체의 고유성에 관계없이 ‘이’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 ③ 마테오 리치가 기댄 철학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된다.
- ④ ‘에테르’ 가설과 달리 최한기의 ‘기’ 이론은 과학적 검증을 받지 못했다.
- ⑤ 『천주실의』는 저술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약용에게 영향을 미쳤다.

38. ‘정약용’과 ‘최한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약용은 ‘이’는 ‘기’에 종속된 속성이라고 보았다.
- ② 최한기는 ‘기’로부터 ‘이’를 인식해 가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 ③ 정약용과 최한기는 모두 ‘이’보다는 ‘기’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 ④ 정약용과 최한기는 모두 주희와 달리 ‘이’와 ‘기’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 ⑤ 최한기는 주희와 달리 ‘기’의 근원적 원리로서의 ‘이’의 선형성을 부정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사르트르에 이르러서 서양 철학은 ‘본질’과 ‘현상(사물)’이라는 이원론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플라톤 이후 ‘본질’과 ‘현상’에 매달린 철학자들과 달리 사르트르는 톱이 썰기 위해 존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물[톱]은 본질[물건을 썰는 작용]에 의존하지만, 인간은 주어진 어떤 본질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은 고유의 본질도 없이 그저 던져진 존재라는 데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본질을 부여해야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생각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나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① 주희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을 최한기가 부정한 것이 당신들의 한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 ② 그 자체로 완전한 이론 체계인 주희의 ‘이기론’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③ 현상 및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기존의 사고의 틀인 ‘이기론’을 활용하는 한 충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 ④ 주희가 관심을 기울인 개체의 고유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허상을 쫓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 ⑤ ‘이기론’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에 ‘이기론’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40. 밑글의 ㉠와 <보기 1>의 ㉡의 <보기 2>에 대한 이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1 > —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질료는 형상이 실현될 바탕이고, 형상은 질료가 실현된 상태이다. 형상은 완전무결하고 완성적인 것이고, 질료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질료는 미완성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완성적인 것을 향해 변화하고자 한다. 형상과 질료의 합성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실체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체를 참된 존재로 여겨 ‘제1실체’라 불렀다.

— < 보기 2 > —

우리 앞에 모래사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곳에 있는 모래를 둥근 그릇에 담아 꼭꼭 눌러서 바닥에 놓고 그릇을 빼면, 우리는 둥근 모양으로 서 있는 모래 덩어리를 보게 된다.

- ① ㉠은 둥근 모양의 모래 덩어리로 있게 한 ‘그릇’을 ‘기’로 보았을 것이다.
- ② ㉠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되는 모래의 성질을 ‘이’에 대응시켰을 것이다.
- ③ ㉡는 모래가 취한 둥근 형상은 질료인 모래가 실현된 상태라고 여겼을 것이다.
- ④ ㉡는 모래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모습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둥굴’을 모래의 형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 ⑤ ㉡는 둥근 그릇에 담기기 전의 모래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라는 점에서 질료의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41. ㉠ ~ ㉤를 바꿔 쓸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꺾었다
- ② ㉡: 지나지 않으므로
- ③ ㉢: 빌린
- ④ ㉣: 들어온
- ⑤ ㉤: 무너뜨리려던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A] 죽은 국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 눈살을 찌푸리고 코로 방귀 똥다.

┌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 피, 바랭이는 나기도 많이 났네.

환곡 비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냈고.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① 장초(莠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B]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고.

베들의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걸려 있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슬었다.

세시 절기, 잔치, 제사는 무엇으로 지내며

원근의 친척, 오가는 손은 어떻게 접대할고.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야 여의려뇨.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餞送)하여

길일을 잡아서 사방(四方)으로 가라 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 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C]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꾸짖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世上)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 억지로 회피하여 잔피로 떨쳐내라.

[D] ┌ 하늘이 만든 이 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 빈천(貧賤)도 내 분수어니 설위한들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장초: 시경(詩經)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의 일종.

(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홀가 <제3곡>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믿음 두는고 <제5곡>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곡>

㉞ 청산(靑山)은 엇데흐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타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제11곡>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괴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흐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낫 둥에 늙는 주를 몰래라 <제12곡>

* 순풍 : 순박한 풍속.

* 교교백구 :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 고기가 뛰고 소리개가 날고 구름 그림자와 하늘 빛을 가리키는 말. 대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나타냄.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신적인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체념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의 형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43. (가)의 [A] ~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C]에 이르러 소멸하고 있다.
- ② [B]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가난한 상황이 [C]에서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③ [C]에서는 [B]와 달리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C]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⑤ [B]에서 가난으로 괴로워하던 화자는 [D]에서는 숙명론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심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는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준다.
- ④ ㉠은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는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황은 「도산십이곡」을 통해 성리학적 수양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 타고난 순수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비루한 기질을 갖고 있어 순수한 본성을 완전히 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황은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깃든 이치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옛 성인의 행적을 본받아 순수한 본성을 최대한 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지은 것이다.

- ① <제3곡>에서 사람은 본래 ‘인성이 어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12곡>에서 ‘우부도 알며 흐거니’라고 노래한 것이군.
- ② <제5곡>에서 ‘교교백구’가 ‘멀리 믿음’ 든다고 화자가 타박한 것은, 그것을 비루한 기질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군.
- ③ <제6곡>의 ‘사시가홍’이 ‘사름과 혼가지’라고 화자가 감탄한 것은, <제3곡>에서 말한 ‘거죽말이’와 ‘올흔 말이’의 차이를 넘어선 경지를 화자가 깨달았기 때문이군.
- ④ <제6곡>의 ‘어약연비 운영천광’은 자연의 이치로 <제12곡>의 ‘우부’나 ‘성인’이 공통적으로 지닌 순수한 본성에 대응되겠군.
- ⑤ <제11곡>에서 ‘만고상청호리라’는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성인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영역(공통) 답안지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④	⑤	①	④	③	③	①	⑤	④	④	⑤	⑤	④	③	②
문항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⑤	③	②	⑤	⑤	②	①	⑤	③	②	④	③	②	②	⑤
문항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정답	③	①	③	①	③	⑤	④	④	③	④	⑤	①	①	②	③

제 1 교 시

2018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 거래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비해 3개월 후 수확하는 배추를 채소 중개상에게 1포기당 8백 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을 선물 계약, 8백 원을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A]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소 중개상은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일까? 만약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상으로 크게 뛰어들면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추를 경작한 농민과는 달리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뛰어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농민이 우려하는 위험을 대신 떠맡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이 중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외환 즉, 통화 선물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격, 즉 달러 환율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의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달러 선물 시장에서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식품을 만드는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 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현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산출	손익
현물	-50원(1,300원-1,350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선물	50원(1,355원-1,305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표> A 사의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

반대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의 경우 받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달러 선물을 팔기로 계약하여 선물의 가격 변동을 이용함으로써 손실에 대비하게 된다.

①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②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계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선물이나 옵션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서 손실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
- ② 선물 거래로 인한 부작용
- ③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 ④ 선물 거래와 시중 금리의 상관관계
- ⑤ 선물 거래에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7. [A]의 거래 방식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소득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군.
- ②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인 것이군.
- ③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이군.
- ④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손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군.
- ⑤ 소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거래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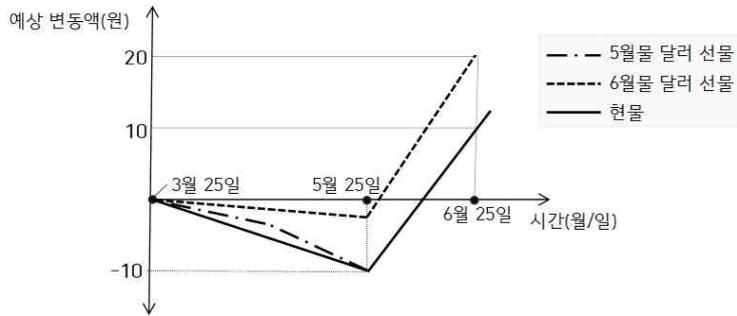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가격 변동의 폭에 따라 손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 ② ㉡은 ㉠과 달리 약정한 상품에 대한 매매의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③ ㉡은 ㉠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④ ㉠, ㉡은 모두 계약 시점과 약정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⑤ ㉠, ㉡은 모두 위험 요소로 인한 시장 내의 경제적 손실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19. <보기>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회의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상황 보고자 : 우리 회사는 오늘 3월 25일에 미국 회사에 LCD 패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2개월 후인 5월 2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금융 대응팀에서 여러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3월 25일부터의 환율 및 달러 선물 가격의 변동을 아래와 같이 예측했습니다. 3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50 원/US\$이고, 5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260원/US\$입니다.



- 김 대리: 달러 현물 가격의 추이로 볼 때 5월 25일에 현물로 대금을 받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 하네요. ㄱ
- 최 과장: 5월 25일에 거래되는 5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한다면 현물로 받은 대금 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ㄴ
- 이 차장: 전례가 있으니 미국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늦춰 6월 25일로 연기 한다면 굳이 5월물 달러 선물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ㄷ
- 고 대리: 말씀하신 대로 대금을 받는 날짜를 6월 25일로 1개월 더 연기할 수 있다면 현물 거래로도 우 리 회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ㄹ
- 박 대리: 현재 6월물 달러 선물 가격은 1,280원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연기하고, 6월 25일에 거래되는 6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옵션 거래의 대상인 상품 ①, ②가 계약일에 약정한 가격 대비 만기일의 가격이 ①는 상승하였고, ②는 하락하였다. 이에 ①, ②에 대한 옵션을 거래한 사람들은 손익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 ① ①에 대한 콜옵션을 판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② ①에 대한 풋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③ ②에 대한 콜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았겠군.
- ④ ②에 대한 풋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⑤ ②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지 않았겠군.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은 생존을 위한 열을 물질대사 혹은 외부로부터 얻는다. 조류와 포유동물들은 주로 내온성인데, 이는 체내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열에 의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온 동물은 외부 온도와 독립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성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양서류, 파충류 등은 주로 외온성인데, 이는 대부분의 열을 외부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온 동물은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성을 가진다. 그밖에 박쥐, 벌 등은 내온성과 외온성을 겸비하는데, 이런 동물을 이온 동물이라 한다.

내온 동물이건 외온 동물이건 간에 동물들이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으로부터 획득한 전체 에너지 중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동물이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 물질대사율이라 하는데, 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요구하는 생화학적 반응의 총합이다. 동물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대사율은 열 상실률로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대사율 중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세포 활동, 호흡, 심장 박동과 같은 기본적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 최소대사율이라 한다. 최소대사율은 물질대사율과 달리 그 측정 방법이 다른데, 내온 동물의 경우 최소대사율은 열의 생성이나 방출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즉 쾌적한 온도 범위 안에서 측정된다. 반면 외온 동물의 최소대사율은 특정한 온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외부의 온도 변화가 체온과 물질대사율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동물의 물질대사율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몸의 크기이다. 커다란 동물들은 보다 큰 몸 크기(몸무게)를 갖고 있어서 작은 동물보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한다. 하지만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온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길이, 표면적, 부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길이가 L배 커지면,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진다.

[A] 예를 들어 몸길이가 2cm인 동물 A와 4cm인 동물 B의 경우 표면적은 4 : 16, 부피는 8 : 64가 된다. 그리고 대사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몸의 세포 수, 즉, 부피에 비례하고, 외부에서 얻거나 외부로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위의 예에서 A의 경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1/2(4/8)$ 인 반면, B는 $1/4(16/64)$ 이다. 이는 어떤 동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와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면 주변과의 열교환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

물질대사율과 몸 크기의 관계는 체세포와 조직에 의한 에너지 소모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생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쥐는 코끼리에 비해서 g당 약 2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처럼 좀 더 작은 동물들의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이 높은 것은 작은 동물의 높은 산소운반율과 관련된다. 좀 더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호흡률, 혈액량, 심장 박동수를 가진다. 따라서 작은 동물은 큰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무게 g당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몸 크기 외에 동물의 물질대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활동, 환경, 체온 조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컷 물개는 먹이를 잡기 위해 헤엄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지출의 많은 부분을 활동에 사용한다. 수컷 물개는 온도가 낮은 극지방에 서식하지만 피부 표면에서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또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생식에는 연간 에너지의 6%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물질대사를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년 중 어떤 계절의 온도가 극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고, 이용 가능한 음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동물들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 휴면이다. 휴면은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데, 휴면에 들어가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물들의 체온은 활동할 때보다 떨어진다. 휴면에는 겨울철의 추위와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 일어나는 동면, 여름철의 고온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하면이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질대사율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획득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 ② 내온 동물의 경우 몸무게 g당 필요한 에너지는 몸 크기에 반비례한다.
- ③ 대사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열에너지는 동물의 몸무게가 작을수록 적다.
- ④ 내온 동물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를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⑤ 이온 동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을 공급받거나 물질대사를 통해 열을 생산한다.

22. <보기>는 동물들의 ‘에너지 지출과 에너지 할당’을 나타낸 표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각 항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항목		a. 남극에 서식하는 10kg의 펭귄	b. 온대 기후에 서식하는 0.02kg의 사슴쥐	c. 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4kg의 비단뱀
연간 에너지 지출량		340,000kcal	4,000kcal	8,000kcal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		34kcal(년)	200kcal(년)	2kcal(년)
에너지 할당	최소대사율	37%	23%	39%
	성장	2%	0%	15%
	체온 조절	15%	33%	0%
	⋮	⋮	⋮	⋮

- ① a~c의 ‘연간 에너지 지출량’을 비교해 보니, 동물의 물질대사율은 몸무게가 커질수록 증가하는군.
- ② a, b의 ‘몸무게 g당 물질대사율’을 비교해 보니, b가 a보다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율이 더 크겠군.
- ③ a~c의 ‘최소대사율’을 비교해 보니, 단위 시간당 열 상실률은 c, a, b 순서로 크겠군.
- ④ a, c와 달리 b가 ‘성장’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인 것을 보니, b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체이겠군.
- ⑤ a, b와 달리 c가 ‘체온 조절’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인 것을 보니, c는 변온성을 가지겠군.

23. ㉠, ㉡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부피와 연관성이 있다.
- ② 동물이 처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 ③ 동물 신체의 열 상실률로 측정할 수 있다.
- ④ 일정한 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다.
- ⑤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서구에서 최초의 문학 이론서라고 알려져 있다. 모든 시초에는 뒷날의 발전 가능성이 ㉠ 잠재해 있는 법이지만 『시학』의 경우는 각별히 그러하다. ㉡ 『시학』에서 맹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던 주요 쟁점들이 뒷날 많은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씩을 띄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이 주된 관심의 대상인 이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것은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고 하면서 카타르시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정화(淨化)의 의미로만 알려져 있는 이 카타르시스는 이른바 정화이론(淨化理論)과 조정이론(調整理論)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정화이론에서는 카타르시스를 재귀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정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비극이 연민을 환기하여 구경꾼들을 겁쟁이로 ㉢ 진락시킨다고 비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러한 문학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플라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화’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학』의 해석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고대 의학에서 쓴 동류요법(同類療法)의 개념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열병은 열기로 다스리고 한기는 한기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류요법에 의한 카타르시스 해석 즉 정화이론은 20세기에 들어서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최면을 통해 회상시킴으로써 신경증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신분석법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불러들여 몰아내는 정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조정이론에서는 이러한 정화이론에 반론을 펼친다. 즉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플라톤은 감정이 이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이성 못지않게 인간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다. 감정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때에만 해롭다고 ㉣ 간주했다. 이처럼 조정이론은 감정의 몰아내기라는 개념을 동반하지 않는다. 연민은 흔히 좋은 감정으로 파악되며 적절한 공포는 건강에 좋은 것이 된다. 이 조정이론은 정신의 건강이 양극단 사이의 중용에 있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논거를 ㉤ 원용한 것이다. 이 윤리학에 기초한 조정이론에 따르면 카타르시스는 일종의 정신적, 도덕적인 길들이기가 된다. 이를 통해 비극을 구경하는 이들은 연민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의 적절한 효용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조정이론은 다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르네상스 시기에 카스텔베트로를 ㉥ 위시한 몇몇은 비극이 감정을 단련시켜 준다고 하였다.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동료의 죽음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되듯이 구경꾼들은 비극 속에서 끔찍하고 보기 딱한 사건을 구경함으로써 가파른 삶의 실상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독일의 레싱 같은 비평가는 비극이 감수성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구경꾼의 심성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둘은 모두 조정이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플라톤이 비극의 가치를 공격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또 비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논의된 카타르시스는 오늘날까지 논쟁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쟁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27. 밑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비극의 효용을 부정하는 플라톤과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논쟁이 후대의 이론가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화두인 카타르시스가 후대 이론가들의 여러 논의로 파생되면서 비극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화와 조정의 두 관점으로 해석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 이론가들이 통합시킴으로써 『시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후대의 몇몇 이론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의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비극의 향유자가 경험하는 카타르시스의 작용 원리를 후대 이론가들이 고전 의학이나 특정 윤리학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극의 효용성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28.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이론은 감정이 조정되는 양상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 ②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법은 카타르시스의 정화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해롭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이성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의 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극단보다는 중용을 지향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29. <보기>는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과제 발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자, 지난 시간에는 카타르시스에 대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작품 「리어왕」을 각자 읽어 오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리어왕」을 읽고 난 후에 개인이 느낀 감상을 카타르시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가 영 : 셋째 딸 코델리아가 왕으로부터 부당한 버림을 받는 장면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혼이 났던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십 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영 : 질투에 눈이 먼 첫째 딸이 둘째 딸을 독살한 후 가책을 느껴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이 헛된 야망으로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항상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영 : 리어왕과 그 딸들이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접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통명스러웠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모님과 누나, 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 ① ‘가영’이 코델리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마음속에 환기된 후 이것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경험을 한 것은 카타르시스의 재귀적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영’이 코델리아에게서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동류요법과 관련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영’이 두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한 것은 카스텔베트로가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영’이 의연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도덕적으로 길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영’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이전과 달리 가족들을 대하는 심성이 부드럽게 순화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레싱이 주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 ②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③ ㉢ : 확실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함.
- ④ ㉣ : 주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문헌 내용을 끌어다 씀.
- ⑤ ㉤ : 여럿 가운데 어떤 대상을 첫째 또는 대표로 삼음.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나’(권기용)는 아내 수술비를 구하고자 복면강도가 되어 집주인인 오 선생네 안방을 침입하지만 정체가 탄로 나고 만다. 그 길로 집을 나온 ‘나’는 자살을 시도하다 깨어난 뒤,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취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전과 기록과 나이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림산업 사장이 타고 가던 차에 치이게 된다. 동림산업 측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보상금과 취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자, ‘나’는 취직을 택한다.

“권 씨, 웃으시오, 웃어요.”

합의서가 작성되고 나자 별안간에 비서가 강요하다시피 나한테 웃음을 재촉했다. 쌍방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기자라는 친구가 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붕대에 묶이지 않은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왜들 이러는 거요?”

안 나오는 웃음을 강요당하는 것도 마뜩찮은 일이거니와, 더구나 허락도 없이 남의 얼굴을 멋대로 훑치려 드는 그 소행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구태여 사진까지 찍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나만큼이나 놀랐던지 오 선생도 옆에서 항의를 했다.

“다아 권 씨 위하느라고 그러는 거요. 기왕 찍는 김에 기분 좋게 한바탕 웃는 포즈를 취해 주시오.” 비서의 주문에 따라 기자가 병상 주위를 돌면서 마구 셔터를 눌러댔다.

<중략>

다음 날 오후에 오 선생이 석간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혈레벌떡 달려왔다.

“이렇게 지독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A] 나는 오 선생이 코앞에 펼쳐 보이는 기사를 읽었다. ‘마르지 않은 인정의 샘’이라는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자해(自害) 상습범에 뺨친 갱생(更生)의 손길’이라고 적혀 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 없다는 듯이 손바닥을 펴서 턱 부근을 약간 가리고 있는 사내의 사진이 그 아래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비(前非)를 뉘우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였다. 한마디로 그것은 허위투성이의 기사였다. 우선 ‘권기용 씨(가명·37세,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거주)’라고 기재된 인적 사항부터가 엉터리였다. 엄연한 내 본명을 가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특히나 심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은 그 점이었다. 멀쩡한 대낮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가 전과자임을 밝힌 그 대목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해 행위를 하다가 얻은 전과인 듯이 그릇된 인상을 줄 염려가 다분하게 매우 애매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나를 자기 회사 사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응달 속의 인생에 거듭나는 기쁨을 안겨 준 미담의 주인공 오 사장은 왕방(往訪)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남들이 알게 돼서 그저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끝으로 그 기사는, 화제의 인물 오만한 사장이 과거에도 부지기수로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처럼 도운 바 있는 숨은 독지가이며, 그가 경영하는 동림산업은 목화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전도유망한 신진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따위 놈들은 가만 내버려 뒀선 안 됩니다! 명예 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B]

오 선생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연신 안절부절을 못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내가 그를 진정시키고 위로할 정도였다. 그의 흥분을 나는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크게는 구두를 태운 뒤로 무섭게 변모해 버린 이웃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자 새로운 우려의 표시일 것이었다. 그리고 작게는 처음부터 이번 일에 대리인 자격으로 깊이 관여한 데서 느껴지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 선생이 걱정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로서는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비해 나온 수많은 경우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전 저대로 또 계산이 있습니다. 실직자인 데다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건 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허위 보도를 하게 만든 건 그들의 약점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존동생 하겠다는 세상 아닙니까. 내 손에도 약점 한 가지가 쥐어진 이상 저들이 나한테 건넨 약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권 선생,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소?”

오 선생이 그렇게 흥분하면 할수록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 선생한테 빗지고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나 부끄럽긴 아마 마찬가지로 겁니다. 허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라도 빗 안 지고 신세 안 져도 되는 부끄러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 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다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허지만 오 선생도 아시다시피 ㉠ 이미 구두를 태워버린 겁니다.”

“땅바닥에다 내던지는 걸 주워 먹는 똥개 신세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천만에요! 내 눈엔 지금 권 선생이 똥개 그 이하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에 단대리에서 살 적에 우리집 동준이란 놈이 시궁창에다 과자를 집어던지는 걸 봤습니다. 동네 꼬마 하나가 그걸 주워 먹겠다고 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나는 꼬마 녀석을 때리는 대신에 내 자식 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수진리 고개 밑에 가면 양산도집이란 술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전에 작부로 일하던 신 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여자를 오 선생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아마 오 선생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 누구를 때렸다는 말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오 선생 생각은 오 선생이 경험한 바탕 안에서만 출발하고 멈춥니다. 자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는 애당초 무립니다. 오 선생은 보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본 적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시위하다 말고 엮어진 트럭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참외를 주워 먹는 인생들을 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 이걸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런 일 모두가 사회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탓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거니까 뒤늦게나마 좀 너덕해보자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선생더러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속으로 끝까지 가 봐도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되돌아서 들판 쪽으로 나와 보려는 것뿐입니다.”

- 윤홍길, 「직선과 곡선」 -

3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B]에서 ‘나’가 보이는 내적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는 [A]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져 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A]에서는 ‘나’의 현실적 상황을, [B]에서는 ‘나’의 주관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B]에서는 ‘나’의 회상을 바탕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구체적인 행동 묘사와 ‘나’의 추측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비합리적 사회 상황, 몰신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모습과 금력을 바탕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본가의 교활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인물들 간의 유대감을 모색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유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나’가 ‘자해 상습범’으로 조작되어 기사화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자본가의 폭력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권 씨’가 본명이 가명으로 바뀐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도된 것은 산업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오 사장’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자본가의 위선적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양산도집’의 ‘신 양’을 ‘오 선생’에게 보여 드리고 싶다는 ‘나’의 말에는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겠군.
- ⑤ ‘나’가 기사 조작을 문제화하려는 ‘오 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 [B]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C]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 [D]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쇠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

* 샷: 갈대로 엮은 샷자리.

* 북덕불: 짚이나 풀 등을 태운 화롯불.

* 나긋손: 저녁 무렵.

(나)

㉠ 한기태심(旱既太甚)* 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놉흔 논애 잠싼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디혀 두고 쇼 흔 적 두마 호고 엄섬이 흐는 말삼 친절(親切) 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셔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합이를 양구(良久)토록 흐은 후(後)에,

어화 기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 기 엇지 와 겨신고. 년년(年年)에 이려 호기 구차(苟且) 흔 줄 알건만논,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 흐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흐다마논 다만 어제밤의 거넨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 을 옥지읍(玉脂泣) 게 꾸어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 를 취(醉) 토록 권(勸) 호거든 이러한 은혜(恩惠) 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호고 큰 언약(言約) 호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末便) 호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호면 혈마 어이 호고. ㉡ 헌 먼덕 수기 스고 즉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뿐이로다. 와실(蝸室)애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 흔 대승(戴勝) 은 이니 한(恨) 을 도우는다. 종조추창(終朝惆悵)* 호며 먼 들 흘 바라보니 즐기논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론 한숨 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 아쓰온 저 소취* 논 벗보님도 도 호 세고. 가시 영근 목은 밧도 용이(容易) 케 갈런마논, 허당반벽(虛堂半壁)애 슬디 업시 걸러고야. 춘경(春耕)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흔 숨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 호야 어지버 이저쩌다. 침피기육(瞻彼淇澳)* 호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 들 아 낙디 호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 핀 곳 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 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 흔 백구(白鷗)야 오라 호며 말라 호라. 다토리 업슬 슨 다문인 가 너기 로라.

㉣ 무상(無狀) 흔 이 몸 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 마논, 두세 이러 밧논 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야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 무원(貧而無怨) 을 어렵다 호건 마논,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 왜라. ㉤ 단사표음(簞食瓢飮) 을 이도 족(足) 히 너기 로라. 평생(平生) 흔 뜻이 온포(溫飽)* 애 논 업노 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 를 일 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호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 한기태심 :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함.

* 실약이 미편호니 :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못하니.

* 소취 : 쟁기.

* 지취 : 뜻과 취향.

* 수기치 : 수평.

* 종조추창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함.

* 침피기육 : 저 기수 물굽이를 바라보니.

* 온포 :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

35.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이미지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탈속적인 공간을 묘사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내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감각을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계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백석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박인로의 「누항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숙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떠올리며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에서, (나)에서는 ‘인간 어너 일이 명 빛과 삼겨시리.’에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를 통해 고난과 방랑으로 점철된 삶이, (나)에서는 ‘구복이 위루하야 어지버 이저쩌다.’를 통해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는 삶이 화자의 숙명임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에서는 ‘세정 모른 한숨’에서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문창을 치기도 하는’ ‘짜락눈’이, (나)에서는 ‘무심흔 백구’가 화자로 하여금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나)에서는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에서 관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화자가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가)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삶의 역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삶이 주는 고통이 내면화되면서 비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동일시할 수 있는 외적 대상을 연상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내면을 담고 있다.
- ⑤ [A] ~ [D]: 시상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정서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38.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현상을 제시하여 화자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직시하게 되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농기구가 제 용도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여 농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내적 지향과 외적 환경을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단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긍정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의 고전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풍속, 제도, 인물들의 가치관 등을 제재로 한다. 그리고 부정적 사회 현실에 대한 저항이나 개혁 등을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소설들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당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조선 후기는 중세 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신분보다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해진 시기이다. 또한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무능한 가장들이 많아지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세태소설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의 사회적 관심사인,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와해되면서 생긴 계층 간의 갈등, 관념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의 삶의 양태 등을 담은 다양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세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노비들이 상전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을 소재로 한 「김학공전」,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춘풍의 이야기를 다룬 「이춘풍전」을 들 수 있다.

(나) 노자(奴子) 중 박명석(朴明錫)이라 하는 놈이 흥계를 생각하고 저의 동류(同類)를 청하여 의논 왈, “우리가 매양 남의 종노릇만 할 것 없으니, 지금 상전이 부인과 어린아이뿐이라. 이때를 타서 상전을 다 죽이고 금은보화를 탈취하여 가지고 무량 계도(桂島) 섬에 가 양민(良民)이 됨이 어떠하뇨.”

하니, 모든 노속(奴屬)이 일시에 응하거늘, 명석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는 말이,

“그대들의 뜻이 이러할진대 모월 모일에 잔치를 배설(排設)하고 그 날로 계교를 행하자.”

하고 각각 돌아가니라.

이때에 학공의 유모가 마침 명석의 집에 갔다가 이같이 의논하는 말을 엿들은 후에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서늘하여 가만히 생각한즉,

‘이 말을 부인에게 전하면 내가 그놈에게 죽을 것이요, 아니 고하면 인정상 차마 못할 바이라.’

하고 유예하여 미결하던 차에, 일일은 노자(奴子) 제인(諸人)이 잔치를 배설한다 하거늘, 유모 마지못하여 들어가 부인에게 이 말을 자세히 고하고 정신없이 앉아 눈물을 흘리거늘, 부인이 이 말을 들으매 친지가 아득하여 기절하였다가, 반향(半餉)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려 가슴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이것이 어인 말이고. 이러한 흥계가 있으되 망연히 아지 못하고 이 같은 대환(大患)을 당하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리오. 미덕과 나의 목숨은 고사하고 만일 학공을 죽이면 김씨의 향화(香火)를 누라서 받들리오. 세상 천하에 이 같이 망극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바라건대 유모는 좋은 묘책을 생각하여 학공을 살려 주면 은혜를 황천에 돌아간 고훈이라도 갚을 것이니 깊이 생각하라.”

하고 눈물이 비 오듯 하니, ㉠ 그 참혹한 경상은 일월이 무광(無光)하고 초목과 금수가 다 슬퍼하더라.

유모 다시 고왈,

“주사야탁(晝思夜柝)에 아무리 생각하여도 좋은 계교 없사오나 인명이 재천이라 하오니 설마 어떠하오리까.”

하니, 부인이 유모를 붙들고 통곡하여 왈,

㉡ “유모의 수단으로 살지 못한다면 노자들을 남녀노소 없이 날날이 불러 우리 집 재물을 분급(分給)하여 속량(贖良)하여 주고 목숨을 보전하겠으니 모두 다 데려오라.”

하니 유모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하와도 저희들이 이미 계교를 정하였으니 듣지 아니 하올지라, 미리 피신함만 같지 못하오니

깊이 생각하옵소서.”

부인 왈,

㉠ “도망을 하자 한들 저 놈의 배포 설심(設心)이 이같이 강성하였으니, 혈혈약질(孑孑弱質)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갈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잔 말고.”

하며, 학공을 붙들고 실성통곡 왈,

[A] “슬프다. 너의 부친이 나와 무슨 연분이 지중(至重)하여 나이 사십에 자식이 없어 서러워하다가 너의 남매를 얻어 후사(後嗣)를 전하고자 하였더니, 조물(造物)이 시기하여 불행히 너의 부친이 일찌기 세상을 버리시니, 마땅히 뒤를 따르고자 하나 너의 남매를 생각하고 망망한 천지간에 구차히 살았다가, 이 같은 망극지변(罔極之變)을 당하니 어느 친척이 있어 구제하리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유유한 창천(蒼天)은 무죄한 인생을 굽어 살피옵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땅을 깊이 파고 학공을 그 속에 넣고 노비 전담 문서를 전대에 넣고 허리에 띠고, 먹을 것을 많이 넣고,

“배고프거든 이것을 먹고 문서를 잘 간수하였다가, 요행히 살아나거든 우리의 원수를 갚게 하여라. 슬프다. 우리도 살아나서 너와 한가지로 다시 만나 살면 천행(天幸)이요, 불연(不然)이면 한 칼에 삼모자(三母子)가 다 죽을 것이니 조심하여 잘 있거라.”

하며 슬픈 눈물로 이별할 제, 학공이 모친의 치마를 붙들고 통곡하며, 모친은 학공의 손을 붙들고 울다가 자주 혼절하니, 그 가련한 경상을 어찌 보리오. 눈물 아니 흘릴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다) 추월이 거동 보소.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팔세하여 내친다. 슬픈 거동 가련하다. 만나 보면, “내 눈에 보기 싫다.”

석경 면경 헛던지며 생증내어 구박할 제, 성외(城外) 성내(城內) 한량에게 의논하되 들경막의 장작인가 전당(典當)집의 은촛대가, 썩은 나무 박힌 뿌리런가. 이러할 줄 몰랐던가.

“어디로 갈라시오, 노자가 부족하면 한대나 보태시오.”

돈 한 돈 내어주며 바빠 나가라 재촉하니, 춘풍의 거동 보소. 분한 마음 폭발하여 추월에게 하는 말이, “우리 둘이 갓 만나서 원앙금침(鴛鴦衾枕) 마주 누워, 불원상리(不遠相離) 굳은 언약 태산같이 언약하여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가지 말래더니, 이렇듯 깊은 맹세 농담인가. 이제 이 말 웬 말인가.”

추월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 “이 사람아, 내 말을 들어 보소. 청루물정 몰랐던가. 장 낭부, 이 낭청도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고 노류장화(路柳牆花)는 인개가절(人皆可折)*이라. 평양기생 추월 성식 몰랐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던가.”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바빠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둥 비껴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B] ‘집으로 가자 하니 무면 도강동(無面 渡江東)이요, 처자도 부끄럽고 또한 막중 호조 돈 이천 냥을 내어다가 한 푼 없이 돌아가면 금부옥(禁府獄)에 가두고 주장대로 지르면 속절없이 죽겠으니 서울로도 못 가겠고, 동서 구걸하자니 그도 또한 못 하겠고, 불원천리 가자니 노자 한 푼 없으되 그도 또한 못 하겠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이럴 줄을 몰랐던가. 후회막급 장연하다.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자 하니 그도 차마 못 하겠고, 석자 세치 지자 수건 목을 매어 죽자 하니 이도 차마 못 하겠네. 답답한 이내 일을 어찌하면 옳단 말이고. 평양 성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 노소인민 아동주졸(兒童走卒)* 이놈 저놈 꾸짖으니 걸식도 못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인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비는 말이,
 ㉠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봐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人情之國)이거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리게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길고 불 사환(使喚)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할꼬.”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 소리하려면 내 집 다시 있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없어 ‘아가씨’ 말이 절로 나고 존대가 절로 난다.
[중략 줄거리] 춘풍의 처는 춘풍을 구하기 위해 참판의 도움으로 비장 신분이 되어 평양에 와 추월을 문초한다.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로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시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 주랴. 네가 먹었거든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朱杖)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도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이 질겁을 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노류장화는 인개가절이라: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은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다.
 * 아동주술: 길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39. (가)에서 언급한 ‘조선 후기의 세태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②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화되었다.
- ③ 당대의 풍속, 제도, 인물들의 가치관 등을 제재로 한다.
- ④ 당대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 ⑤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노비 박명석이 노숙들에게 ‘상전을 다 죽이고 금은보화를 탈취하’자는 데서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와해되어 가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나)에서 유모가 학공의 모친에게 노비들의 계교를 알리지 않고 ‘유예하여 미결하’는 모습에서 당대 사회의 이면에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다)에서 추월이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팔세하여 내’치며 경제력에 따라 춘풍을 달리 대접하는 행태에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태를 엿볼 수 있군.
- ④ (다)에서 춘풍이 추월의 집 ‘사환이나 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는 데서 가부장제가 흔들리고 있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 ⑤ (다)에서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문초하며 ‘바빠 다짐하라’며 강권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인 여성이 나타난 세태를 살펴볼 수 있군.

키며) 저분들은 팔자를 고치기 위해 벌써 30년째 동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노선수보 (서쪽을 향하여) 아, 벌써 동쪽이 보이는 것 같아. 조금만 가면 동쪽이 나올 거야.

노여우 (역시 서쪽을 바라보며) 네, 동쪽이 보이는 것 같군요. 아, 주연을 맡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노운전수 전 튜브 땀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적당한 곳에 앉아 일을 시작한다.)

역장보 참 기억이 나는군. 30년 전에 이 두 분이 동쪽으로 간다고…… (서쪽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동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갔는데 30년 후인 오늘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군.

시간강사 (노선수보에게) 이리로 가면 서쪽입니다.

노선수보 ㉠ 왜 서쪽이요, 동쪽이지. 동쪽을 향해 벌써 오랫동안 달렸는데 내가 방향을 모르리라고요?

입후보 영감님, 저희들은 서쪽에서 왔습니다. 저리로 가면 서쪽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노선수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요. (노운전수에게) 여보, 이 양 반들이 시끄러우니 저쪽에 가서 쉬도록 합시다.

노여우 ㉡ 아, 동쪽이 보이는 것 같다. 빨리 화장을 좀 해야지. 갑자기 주연을 맡게 되면 곤란해.

노선수보 이번엔 주장을 시킬 거야.

노선수보 퇴장, 노운전수, 노여우도 그 뒤를 따라 서쪽으로 퇴장. 보조 경찰관과 역장보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서쪽 무대로 사라지는 노인들을 손가락질하며 한바탕 크게 웃어댄다.

운전수 자, 튜브 땀질이 다 됐습니다. 곧 떠나야죠. 스페어타이어가 없으니 이 꼴이군.

역장보 ㉢ 스페어타이어는 꼭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넷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지. 스페어타이어가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는 흡사 낮 다음에 오는 밤 같은 존재니까.

운전수 할 수 있나요. 이왕 없이 떠났으니 그대로 갈 수밖에. 자 갑시다.

전보조인물 가자! 가자! 희망의 동쪽으로!

운전수의 연장이 걸려 버드나무의 받침대가 쓰러져 버드나무도 자빠진다. 전원 그대로 퇴장. 동쪽으로

역장보 앗따, 나무가 자빠졌군. 자 손을 좀 빌려주세요.

(역장보와 보조 경찰관이 버드나무를 받침대로 받쳐 다시 세운다. 이때 동서 양측에서 차가 발동하여 떠나는 소리가 난다.)

보조경찰 이것도 동쪽으로 가고 저것도 동쪽으로 가는군.
(차 소리가 사라진다.)

자 좀 쉬어 볼까.

역장보 전 들어가 기차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언제 기차가 이 임시 역을 통과할지 모르니까.

먼 데서 차 소리가 또 들려온다.

보조경찰 (관객에게) 좀 쉬려고 했더니 또 다른 차가 옵니다. 신분증을 조사해야죠. 동쪽으로 가는 손님들 입에 틀림없습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차 소리가 들려온다.)

저쪽에서도 차가 옵니다. 동쪽으로 가는 손님인 모양입니다.

4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접한 내용이다. ㄱ~ㅍ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 이근삼 희곡의 특징

- ㄱ. 배경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사건들의 개연성이 떨어짐.
- ㄴ. 등장인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 또는 대사를 반복함.
- ㄷ.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인물 등을 설명함.
- ㄹ.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생소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과 소품을 사용함.
- ㅁ. 등장인물의 이름, 행동, 직업을 통해 특정한 성격이나 유형을 보여 줌.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자본주의의 발달은 다수의 소외 계층을 양산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고착화하는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는 소외 계층에게 막연하고 거짓된 희망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소외 계층을 특권 계층이 중심이 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쪽을 갈망하는 족속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풍자하면서 거짓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비극성과 그들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 ① ㉠: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에서 다수의 소외 계층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 기약 없이 맹목적으로 희망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성을 느낄 수 있군.
- ③ ㉢: 잘못된 방향인지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왜곡된 현실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소외 계층의 간절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군.
- ④ ㉣: 희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 대한 작가의 연민을 엿볼 수 있군.
- ⑤ ㉤: 스페어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권 계층을 위해 소외 계층을 부속품처럼 만들어 버린 부조리한 사회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영역(공통) 답안지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㉓	㉔	㉔	㉓	㉔	㉓	㉕	㉒	㉑	㉒	㉒	㉒	㉔	㉓	㉒
문항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㉔	㉓	㉑	㉕	㉓	㉑	㉓	㉕	㉔	㉒	㉕	㉒	㉔	㉔	㉓
문항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정답	㉓	㉕	㉓	㉔	㉓	㉔	㉓	㉔	㉑	㉒	㉔	㉒	㉒	㉔	㉓

제1교시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
관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특정한 국가에서 순수하게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국가의 언어 상황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한 개인이나 사회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다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 사용’과 ‘양층 언어 사용’의 두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중 언어 사용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일상생활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둘 이상의 언어들은 사회적으로 기능상의 차이 없이 통용된다. 이중 언어 사용은 개인적 이중 언어 사용과 사회적 이중 언어 사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이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공동체 내에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중 언어 사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될 필요는 없다. 대다수 구성원들이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의 언어만 알고 있어도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염려는 없다.

이중 언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둘 이상의 언어들은 공용어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대체로 구성원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수자 언어’가 되고, 상대적으로 사용 인원이 적은 언어는 ‘소수자 언어’가 된다. 일반적으로 다수자 언어는 힘이나 권위의 문제에 있어 소수자 언어보다 우세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소수자 언어는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작다는 이유로 정치,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양층 언어 사용은 언어학자 피겨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양층 언어 사용은 언어적 유사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방언 수준 이상으로 음운, 문법, 어휘 등의 층위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개 이상의 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이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 사용하는 장소나 상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쓰인다. 양층 언어 사회에서 변이어들은 언어 사용자 수와 무관하게 ‘상층어’와 ‘하층어’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상층어는 주로 종교, 법률, 교육, 행정 등과 같은 ‘높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식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반면 하층어는 가족 간의 비격식적인 대화, 친교를 위한 일상 담화 등 ‘낮은 차원’의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가정에서 모어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 양층 언어 사용 상황에 있는 구성원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 상층어를 모른다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투표와 같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겨슨과 달리 피시먼은 그의 연구에서, 언어적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두 언어가 각자의 기능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수행하는 상황까지를 포함하여 양층 언어 사용을 설명하였다. 피시먼의 연구 결과 [A] 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라과이의 언어 사용 상황을 들 수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스페인어가 상층어로서 각종 행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스페인어와 언어적 유사성이 없는 토착어인 파라니어는 인구의 90%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층어로 사용되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대조의 방법으로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인과의 방법으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을 하위 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사용되는 변이어들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
- ②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특정 변이어를 모르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③ 양층 언어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 변이어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
- ④ 이중 언어 사회에서는 소수자 언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 ⑤ 이중 언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자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A 지역에서는 현대 표준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는 현대 표준 아랍어가 구어체 아랍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현대 표준 아랍어를 사용해야 하는 종교 시설에서 구어체 아랍어를 사용하면 비난을 받게 된다.
- B 지역에서는 프랑스 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이 두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프랑스 어와 영어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Bonjour(봉주르), Hello(헬로)!'와 같이 인사를 건넨다.

- ① A 지역에서는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겠군.
- ② B 지역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두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겠군.
- ③ A 지역에서는 B 지역에서와 달리 두 개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겠군.
- ④ B 지역에서는 A 지역에서와 달리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의 구분이 없겠군.
- ⑤ A 지역과 B 지역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언어적 다양성이 나타나겠군.

19. [A]에 나타난 '피시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층어와 하층어는 서로 다른 언어적 체계와 규범을 지닌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 ② 상층어와 하층어를 구분하는 기준을 사용 비율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설정하였다.
- ③ 이중 언어 사용과 양층 언어 사용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언어학의 외연을 넓혔다.
- ④ 언어적 유사성에 국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차별적 사용 여부에 주목하여 양층 언어 사용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⑤ 언어에 대한 연구 관점을 본질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층 언어 사용의 연구 분야를 체계화하였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복지 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 보장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조직적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 복지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몇 가지 모델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월렌스키와 르보가 제안한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 잔여적 복지 모델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적 기능이 일차적으로 사적 영역인 가족이나 시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 복지 제도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여적 복지 모델은 구호적 성격의 사회 복지 모델이다. 잔여적 복지 모델은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 수준으로 ㉢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회 복지의 대상도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기능을 보장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공공 부조와 같이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회 복지 서비스는 소득 조사나 자산 조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제공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가족, 공동체, 민간 자원봉사, 시장 등 민간 부문이 개인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제도적 복지 모델은 각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기 성취를 돕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 제도를 통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상적 위험과 불안에 충분히 ㉤ 대처하기 어려우며, 가족이나 직장도 개인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복지 모델은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성별, 나이, 지위, 계층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생존의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탈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탈상품화는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도적 복지 모델에서는 국가가 사회 복지를 시장 논리에 내맡기지 않고 개인 또는 가족, 민간 부문에 그 책임을 ㉥ 전가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모델 중 하나만을 택하여 모든 복지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복지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를 ㉦ 구현할 때는 운영 방식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한다. 전자는 국민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 중 일부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국가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생계 급여 제도는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지 모델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② 복지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복지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 ③ 공공 부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 ④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반드시 자산 조사 과정을 거친다.
- ⑤ 우리나라의 생계 급여 제도는 잔여적 복지 모델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21. <보기>의 상황에 대해 ㉠, ㉡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민간 자선단체가 주로 빈민 구호 역할을 맡고 있는 A 국가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빈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국가의 의료 복지 제도가 미비하여 빈민들이 개인 비용으로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 국가에서는 빈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국가가 빈민 구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를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합니다.
- ② ㉠: 개인의 욕구 충족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현재처럼 민간 자선단체가 빈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합니다.
- ③ ㉡: 국가에서 빈민 구호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 복지의 책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 ④ ㉡: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빈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빈민들이 겪는 생존의 위험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 ⑤ ㉡: 복지 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여 특정인이나 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후의 반응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글을 읽고 보니, 사회 정책적 차원의 두 복지 모델은 (A)에 따라, 운영 방식 차원의 두 복지 제도는 (B)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A)

(B)

- | | |
|-------------|---------|
| ① 정부의 정책 방향 | 수혜자의 계층 |
| ② 정부의 개입 정도 | 수혜자의 범위 |
| ③ 정부의 지원 여부 | 수혜자의 지위 |
| ④ 정부의 운영 체제 | 수혜자의 능력 |
| ⑤ 정부의 재정 상황 | 수혜자의 소득 |

2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자라는 것을 보태거나 채워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
- ②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③ ㉡: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 ④ ㉡: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썩음.
- ⑤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미경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분해능’은 관찰이 가능한 두 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분해능이 작을수록 현미경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분해능은 검사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된 광원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아진다. 광학 현미경에 사용되는 광원인 가시광선은 380~780nm의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가까운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을 이용하더라도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학 현미경은 집광렌즈, 대물렌즈, 접안렌즈를 통해 검사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집광렌즈는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검사 대상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검사 대상의 중간 상을 만든다. 그리고 대물렌즈와 접안렌즈가 중간 상을 굴절시켜 연구자가 검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한다.

의학과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세균이나 세포를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더 향상된 분해능을 가진 현미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전자 현미경이다.

전자 현미경은 높은 수준의 분해능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선을 사용한다. 전자선은 가시광선과 같이 굴절과 집중이 용이하면서도 파장은 훨씬 짧아 광학 현미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분해능을 보여 준다. 전자 현미경 중 검사 대상을 3차원의 입체적인 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주요 부품으로는 전자총, 전자기 집광렌즈, 주사 코일, 전자기 대물렌즈, 전자 검출기, 모니터나 필름 등이 있다.

전자총은 전자를 가속하여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자총의 전압이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가 방출된다. 방출된 전자는 전자기 렌즈*의 일종인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를 통해 굴절되고, 굴절된 전자들이 집중되면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전자선을 형성한다. 이때 ㉠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 대상에 집중되는 전자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개의 전자기 집광렌즈에 의해 형성된 전자선은 주사 코일을 통과하게 된다. 주사 코일은 전자기장을 활용하여 전자선의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전자선이 검사 대상의 표면 전체에 순차적으로 주사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주사 코일을 통과한 전자선은 전자기 대물렌즈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전자기 대물렌즈가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집중시키는 정도에 따라 검사 대상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면적이 결정되는데, 그 면적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작아져 더 정밀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전자기 대물렌즈를 통해 주사된 전자선이 검사 대상의 표면에 부딪치면, 그 충격에 의해 검사 대상의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전자를 2차 전자라 한다. 전자 검출기는 2차 전자를 검출한 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나 필름에 검사 대상의 입체적인 상을 만들어 낸다. 이때 검출된 2차 전자의 양이 많을수록 모니터나 필름에 나타나는 상은 더욱 선명해진다.

[A]

* 전자기 렌즈: 자기장을 이용하여 방출된 전자를 집중시키거나 전자선을 굴절시키는 기능을 하는 원통의 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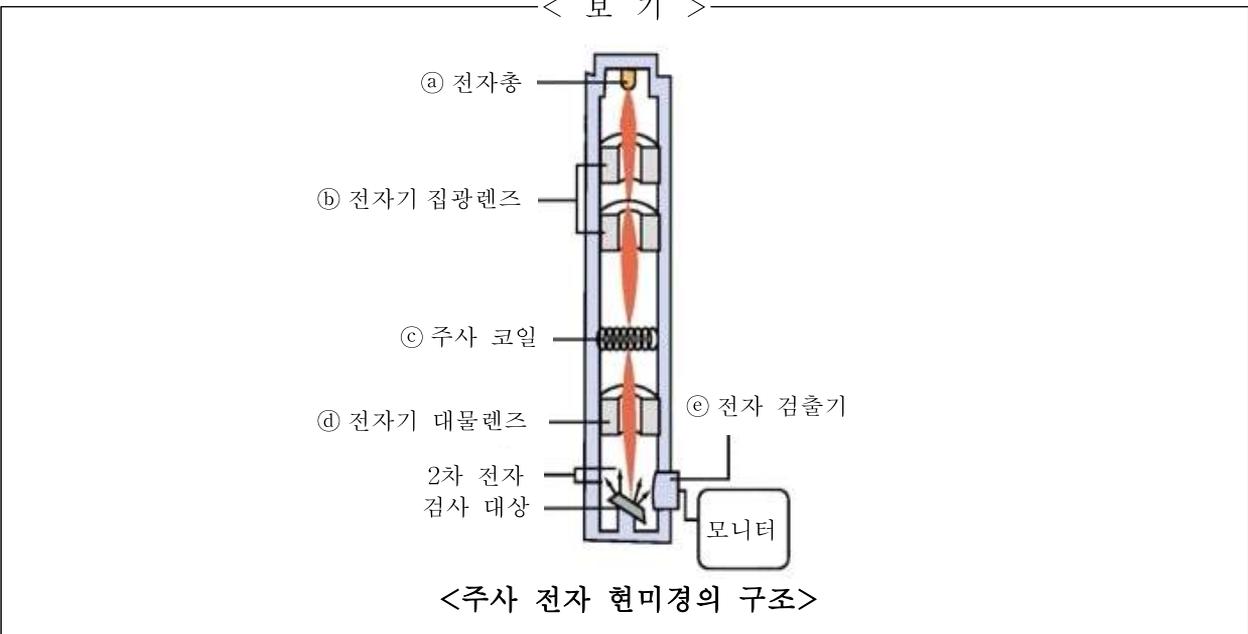
2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학 현미경은 집광렌즈를 통해 중간 상을 확대한다.
- ②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이 굴절되는 원리를 활용한다.
- ③ 광학 현미경은 주사 전자 현미경과 달리 접안렌즈를 사용한다.
- ④ 주사 전자 현미경에서는 2차 전자를 육안으로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 ⑤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검사 대상의 입체적인 상을 얻을 수 있다.

25. ‘분해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분해능이 작을수록 더욱 정밀하게 검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음. ①
-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에 영향을 받음. ②
- 전자 현미경은 사용하는 렌즈의 수가 많을수록 분해능이 커짐. ③
- 전자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작은 것은 전자선을 사용하기 때문임. ④
- 검사 대상의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면적이 작을수록 주사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도

26. [A]를 참고하여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짧은 파장의 전자를 방출하려면 전압이 높아야 한다.
- ② ㉡: 방출된 전자를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전자선으로 만든다.
- ③ ㉢: 검사 대상의 표면에 주사되는 전자선의 방향을 제어한다.
- ④ ㉣: 자기장을 이용하여 검사 대상의 표면에 전자선을 집중시킨다.
- ⑤ ㉤: 검사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선을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27.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것이군.
- ②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군.
- ③ 광학 현미경보다 더 작은 대상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군.
- ④ 검사 대상의 표면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기 위한 것이군.
- ⑤ 검사 대상의 표면에 전자선을 정확하게 주사하기 위한 것이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는 청각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공연 예술이면서 시각적 요소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판소리의 주요 시각적 요소는 창자의 신체와 창자가 입는 의상, 그리고 소도구로 사용하는 부채가 전부이다. 판소리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전략의 요체는 역설적이게도 시각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하는 것을 제약하는 공연 예술의 관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판소리 창자의 의상과 소도구가 복잡하게 짜여 있다면 창자는 오히려 시각적 요소들의 제약으로 인해 작중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변신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 특유의 연행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창자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완전히 무대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청관중’이 그 등장인물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특징만을 드러내는데, 이를 판소리에서는 ㉠ ‘부분적 현전’이라고 한다. 한편 청관중은 창자의 부분적 현전을 매개로 하여 그 등장인물의 완전한 모습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환기하게 되는데, 이를 ㉡ ‘매개적 현전’이라 한다. 또한 판소리에서는 한 사람의 창자가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게 되는데, 이를 ㉢ ‘통합적 현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판소리에서 창자와 고수, 청관중은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게 될까? 판소리의 공연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처럼 판소리 공연은 동시적 결합 단위 ㉠과 ㉡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며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공소’^{*}를 활용하게 된다. 고수는 추임새로 공소를 메우면서 청관중의 추임새를 유도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동시적 결합 단위 ㉠에서 창자는 ‘창’을 하는 사이사이에 고수와 청관중이 공연 내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에 따라 고수와 청관중이 추임새를 통해 자기의 주관은 공연 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작중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동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반면 ㉡에서는 창자가 ‘아니리’를 하면서 공소를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청관중은 자기의 주관은 공연 내부에 개입시키기 어려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중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이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판소리 공연은 공연자인 창자가 고수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연 내부에 필요한 공소를 적절하게 만들고, 청관중이 그 공소를 추임새로써 적절히 채워 나가면서 완성된다. 공소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을 통해 진행되는 판소리 공연은 ‘동화-이화’의 반복을 통해 판소리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소리관을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판소리가 생동적인 시간적 구조, 곧 과정적 생성 구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공소: 공연 예술에서 공연자가 청관중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품 내부에 시간적으로 휴지를 두거나 부분적으로 공간을 비워 두는 부분.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창> - ㉠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마오 마오, 그리 마오. (고수: 얼씨구) 서울 양반 독협디다. 기처 불식이란 말이 (고수: 허이) 사기에난 있지만는, 내 게조차 이려시오? (고수: 어이 좋다) 어제 저녁 모시었을 제, 날 보고만 말씀허었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고수: 얼씨구) 지나간 밤 (고수: 허이) 오날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어 있기가 뜻밖이오. (청관중: 잘한다)

<아니리> - ㉡

그 때야 춘향 모난 어사또가 사원 줄은 알았으나, 간밤에 사위를 너무 괘시헌 가남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가고 삼문 밖에서 눈치만 보다,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지 인자 되얏다 허고 떠들고 들오난디, (고수: 얼씨구)

<창> - ㉢

어디 가야 여기 있다. 도사령아, 큰문 잡아라. (고수: 허이) 어사 장모님 행차허신다. 열녀 춘향을 누가 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장비야, 배 다칠라! 열녀 춘향 난 배로다. (고수: 얼씨구) 네 이놈들, 오늘도 삼문만이 이미 드셀 테냐. (청관중: 잘한다)

- 판소리, 「춘향가」 중 -

- ① ㉠은 ㉡에 비해 청관중이 작중 상황에 쉽게 몰입될 여지가 있겠군.
- ② ㉡는 ㉢에 비해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겠군.
- ③ ㉡는 ㉠, ㉢에 비해 시각적 요소로서 의상과 소도구가 더 다양하겠군.
- ④ ㉠~㉢의 과정을 통해 창자와 청관중이 소통하며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겠군.
- ⑤ ㉠, ㉡, ㉢는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연행되겠군.

29. 윗글의 ‘판소리(A)’와 <보기>의 ‘풍물굿(B)’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풍물굿’은 팽과리, 징, 북과 같은 풍물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물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공연 예술이다. 풍물굿에는 특정한 등장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쓰고 공연에 참여하는 ‘잡색’이 있다. 잡색은 다른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를 오가면서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관중의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 공연을 보던 청관중은 잡색의 유도로 신명을 느끼며 공연관 안으로 들어가 춤을 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연자화된다. 이처럼 풍물굿은 공연자와 청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연행 방식을 보여 준다.

- ① (A)에서는 창자가, (B)에서는 잡색이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하며 연기하는군.
- ② (A)에서는 시간적 공소가, (B)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며 연행되겠군.
- ③ (A)와 (B)에서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공연하는군.
- ④ (A)와 (B)에서는 청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A)와 (B)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가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군.

3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청관중이, ㉡은 창자가 주체가 된다.
- ② ㉠은 ㉡과 달리 청관중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③ ㉡은 ㉠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⑤ ㉣은 ㉠과 ㉡의 구현 순서가 역전되면서 진행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A]

-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

(나)

동백의 숲까지 나는 간다
 저 붉은 것,
 피를 토하며 매달리는 간절한 고통 같은 것

어떤 격렬한 열망이 이 겨울 꽃을 피우게 하는지

㉠ 내 욕망의 그늘에도 동백이 숨어 피고 지고 있겠지

㉡ 지는 것들이 길 위에 누워 꽃길을 만드는구나

동백의 숲에서는 꽃의 무상함도 일별해야 했으나

견딜 수 없는 몸의 무게로 무너져내린 동백을 보는 일이란

곤두박질한 주검의 속살을 기웃거리는 일 같아서

㉢ 두 눈은 동백 너머 푸른 바다 더듬이를 곤두세운다

옛날은 이렇게도 끈질기구나

동백을 보러갔던 건

거기 내 안의 동백을 부리고자 했던 것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오네

부리지 못한 동백꽃송이 내 진창의 바닥에 떨어지네

㉣ 무수한 칼날을 들어 동백의 가치를 치고 또 친들

나를 아예 죽고 죽이지 않은들

저 동백 다시 피어나지 않겠는가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오네

㉤ 부리지 못한 동백꽃송이

내 진창의 바닥에 피어나네

[B]

- 박남준, 「동백」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담담한 자기 고백이 드러나 있다.
- ② 외부 정경을 관찰하면서 떠올린 지난 삶의 궤적이 나타나 있다.
- ③ 삶의 덧없음을 이겨 내고자 하는 성숙한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④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아의 근원적 모습을 탐색하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는 반복과 변주를 활용하여 내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도치를 통해 상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발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문의 마을에 가서」는 작가가 망자(亡者)의 무덤을 산에 쓰고 난 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와 느낀 삶과 죽음의 ‘상거(相距)’와 ‘합일(合一)’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상거’는 삶과 죽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을, ‘합일’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 시를 감상할 때는 각각의 시적 표현들이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분해 보면 감상의 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에서 ‘상거’, ‘합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을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발표해 봅시다.

- ①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는 삶과 구별되는 죽음의 이미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뺏는구나.’는 ‘길’을 매개로 삶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는 망자의 무덤이 있는 산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눈’이 하나로 덮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을.’은 삶과 죽음이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는 삶과 죽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리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 <보기>는 (나)에 대한 시평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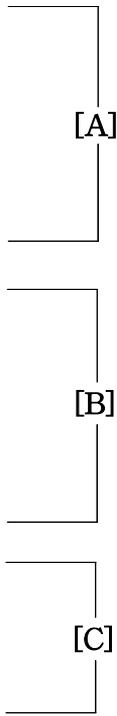
시인은 ‘동백’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생의 욕망을 내려놓고 싶어 동백의 숲을 찾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것은 동백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그 모양새와 붉은 색을 그대로 유지하듯, 아무리 치열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적 의지를 다진다 하더라도 생의 욕망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기 소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간은 생의 욕망에 얼마일 수밖에 없기에, 떨어진 동백을 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에, 시인은 꽃길을 만든 동백에 주던 시선을 거두었던 것이다.

- ① ㉠: 생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동백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 진 후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며 꽃길을 만드는 동백을 통해 끈질긴 생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생에 대한 욕망이 외부 세계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생의 욕망을 제거하려는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 완전한 자기 소멸에 이르지 못하기에 생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실패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푹푹탁탁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簾] 밖에는 서리 내려 밤 벌레만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임 그리는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비어 있네.
 먼 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 놓았는데
 역사*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 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

* 역사: 편지를 전하는 사람.

(나)

산천은 험준하고 수림(樹林)은 총잡*흔디 만학(萬壑)의 눈 사이고 천봉(千峰)의 바람 칠 제 시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화전의 죽은 군사 원혼(冤魂)이 한조(恨鳥)되야 조조만 원망*호여 우니난디 이계 모도 귀성(鬼聲)이
 라 도탄 중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히런고
 공산 ㉡ 낙월(落月) 김흔 밤 귀촉도 불여귀의 우는 저 두견 너 홀노 울지 말고 날과 함기*

- 임중환의 사설시조 -

* 총잡: 뽀뽀하게 우거짐.

* 함기: 함께.

(다)

가로등이 좋아지는 것은 역시 겨울철이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밤에 설레는 눈발 속에 우러러보는 등불,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닿을 수 있는 동경의 알맞는 위치에 외롭게 켜 있는 꿈의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진 가로등 기둥에 호젓이 기대어 서서 가없는 명상에 잠시 잠겨 보는 고독, 그것은 나의 젊은 날의 눈물겨운 모습이다.

그러나 요즘은 눈 오는 밤 가로등에 기대 보는 그런 고독한 낭만조차 잊은 지 오래다. 그것은 나의 연령의 탓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인간이란 나이가 들수록 한결 고독한 것이며, 그래서 눈이 오는 밤은 한결 유감해지는 것이리라. 다만 내가 고독한 낭만을 못 가지는 것은 세태의 탓일 것이다. 해방 후로 우리는

밤의 낭만을 잃은 것이다. 그 포근한 밤의 지향 없는 소요를 통행 금지라는 법이 막고 있는 것이다. 열한 시 사이렌이 불고 나면, 이미 밤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청 앞길의 가로등은 다만 텅 빈 적적한 광장을 외롭게 비치는 고독한 등불이 되는 것이다. 통행 금지 시간 넘어 거리에 선 가로등의 그 처참한 모습과 쓸쓸한 불빛. 그렇다. 우리의 생활에는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밤을 완전히 어둠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안데르센 동화에 ‘늙은 가로등’이란 작품이 있다. 밤이면 가로등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마가 넓은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작품이다. 가로등은 그 꿈 많은 청년의 허연 이마에 그의 불빛의 쓸쓸한 키스와 또한 ‘쓸쓸한 축복’을 부어 주었다. 나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 젊은 청년의 이마에 비쳐주는 가로등의 쓸쓸한 불빛이 불빛이기보다 오히려 ‘신의 너그러운 축복’이요, ‘내 삶이 내게 비쳐 주는 빛’ 같았다.

나는 나의 멀고 아득한 **인생 여로**의 대목마다 외로운 가로등이 켜 있기를 빌었다. 참으로 가로등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은은히 비치는 별빛이다. 나는 가로등을 목표로 해서 어두운 길을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 가로등 가까이 가면 한결 길이 환해지고, 때로는 내가 목표한 가로등에 벌레처럼 설레는 함박눈이 이상하게 노래하는 꽃송이가 한 꼬투리처럼 걸리기도 하고, 또는 가는 실비가 비단 베일을 씌우며 신비롭게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다만 어둠 속에 등불만 쫓긋이 켜 있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한 가로등을 지나면, 우선 나의 그림자가 발에 밟힌다. 그 그림자가 밟히는 사실을 나는 무어라 표현할까? 눈물겨운 추억의 한 자락이 발에 밟히는 것이라 할까? 나는 이 어둠고 고독한 밤길에 다만 가로등이 비쳐주는 다만 그만큼의 ‘빛의 돌레’ 속에 나의 그림자와 더불어 호젓이 길을 걷는 한갓 영상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 자신 바로 그것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든다. 그 흐뭇한 고독감,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서러움의 물길’이다. 이 물길 위에 배를 띄우듯 어쭙잖은 몇 편의 시, 그것이 나의 숨쉬는 시의 세계일 것이다.

가로등의 이러한 빛의 돌레를 완전히 벗어날 때, 나는 앞이 아득한 암흑의 벽을 다시 느끼며, 끝없이 아득한 어두운 길에 또 하나의 가로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가로등이 없을 경우, 아득한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다.

나의 일생은 언제나 적당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지나온 길 위에 그것은 나란히 열을 지어서 스크린의 어느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뻗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설사 아무리 절망하더라도, 늘 가로등이 대목마다 켜 있는 길일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 신을 잃지 않는 한, 혹은 시를 놓치지 않는 한. 그래서 나는 때때로 창백한 이마에 가로등의 그 쓸쓸한 불빛의 키스와 축복을 받으며, 외롭게 흐뭇한 밤길을 갈 것이다. 가로등에 축복이 있기를.

- 박목월, 「가로등」 -

3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고사를 활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감각을 전이시켜 작중 상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글쓴이의 정서와 연계되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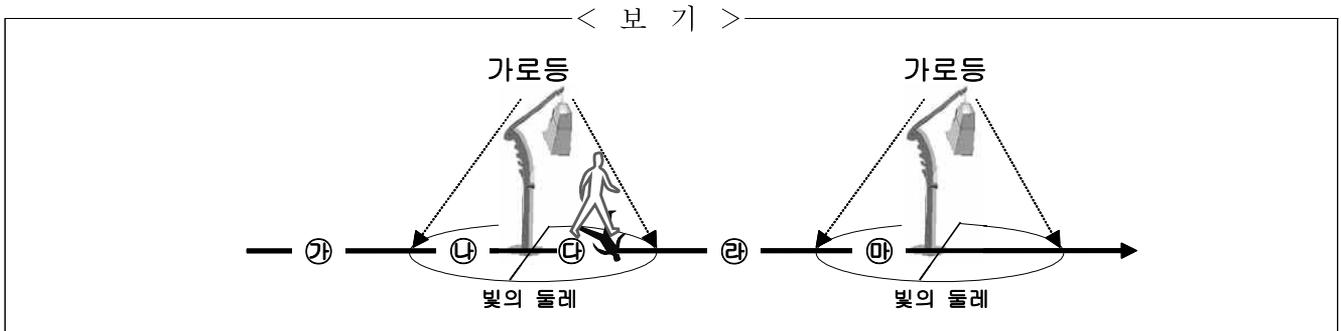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투영된 소재이다.
- ② ㉠과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은 화자와 교감하는 자연물이고, ㉡은 화자와 동일시된 자연물이다.
- ④ ㉠은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원망을 표출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고, ㉡은 화자의 애상감을 더해 주는 존재이다.

37. (가)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외부의 정경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와 [C]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C]는 ‘방 안’ → ‘뜨락’ → ‘방 안’으로의 공간 이동을 보이고 있다.
- ⑤ [A]~[C]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8. (다)의 글쓴이의 **인생 여로**를 <보기>의 ㉠~㉣에 따라 정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글쓴이가 기대감을 갖고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대목이다.
- ② ㉡: 지향하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며 희열을 느끼는 대목이다.
- ③ ㉢: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흐뭇한 고독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 ④ ㉣: 아득한 상황일지라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대목이다.
- ⑤ ㉣: 종교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대목이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종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헛, 매트 애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험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 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 [A]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다다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샅샅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뒷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꼭 다문 입은 헤일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났다. 다시 났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고서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 — 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택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B]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 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다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환, 「제3병동」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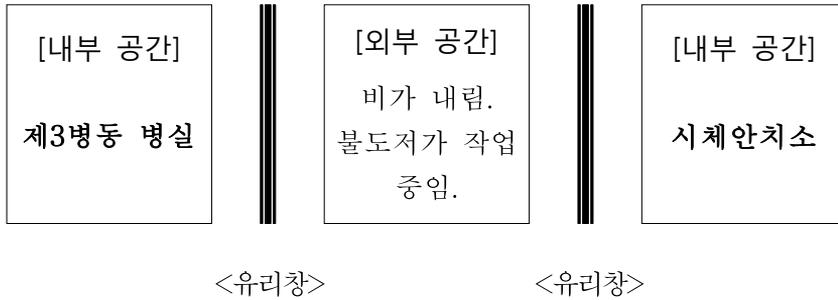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 ② 어머니를 여윈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중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41.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1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 보기 2 >

- 가희 : [A]의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희 : [B]의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희 :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희 :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① 가희, 나희 ② 가희, 다희 ③ 나희, 다희 ④ 나희, 라희 ⑤ 다희, 라희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권 승상의 아들 용선은 순무어사로 지방 순시 중 강정에 있는 숙부 권 시랑의 집에 들른다. 거기서 용선은, 부모인 오 공 부부가 돌아가셔서 고모 오 부인과 살고 있는 오 소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정혼한다. 그러나 용선은 태후의 눈에 들어 공주와 강제로 혼인하게 될 처지에 놓인다. 용선은 어머니 김 부인, 형제들과 함께 권 시랑의 아들 봉선이 한림의 벼슬을 받은 일을 축하하러 숙부의 집에 왔다가 숙부께 오 소저와의 혼례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용선이 꿇어 고하여 왈,

“숙부의 말씀이 당연하시나 소질(小姪)은 승천 입지*하와도 오 소저와의 성례 전은 공주를 맞이하지 아니 하려나이다. 숙부는 밝혀 살피옵소서.”

시랑이 침음양구*에 탄식 왈,

“㉠ 용선의 일념에 맺힌 마음은 돌이키기 어렵도다.”

하고, 부인과 제인(諸人)을 대하여 왈,

“용선의 마음이 이러하여 시방 돌아가 상명*을 준수하여 공주를 맞이한다 하나 끝내 화합치 못할 것이 요, 오 소저의 일생이 잔잉*할 뿐더러 몽중에 오 공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용선과 성례함을 어기지
[A] 말라 하옵이 진실하고, 또 용선의 기상이 길고 긴 복록을 누릴지라, 비록 기군(欺君)*함이 되나 길일을 기다려 강정에서 남모르게 성례하여 용선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아가 공주를 맞으면 좋으리라. 용선을 경계하여 상명을 준수한 후 날을 기다려 성례케 하라.”

하니, 용선은 삼가 명을 받들고 김 부인과 용선의 형제는 기꺼하나 오 부인은 즐겨 아니하고 실망하여 탄식 왈, “사정(私情)에 얽매어 신하가 되어 임금을 기만한 죄를 범하여 이같이 하니 어찌 마침내 평안하리오.” 하더라. 용선이 시랑 부부께 하직하고 김 부인을 모셔 본택으로 돌아가니라.

이러구러 염육일이 다다르매 용선이 강정으로 나아갈새, 종을 데리고 필마로 강정에 이르러 다만 권 시랑의 외당에서 길복을 갖추고 설매당에서 혼례의 절을 올릴새, 다만 시랑 부자와 부인 모녀 앉아 있어 오 부인이 소저를 보건대 흥월 나삼과 축라 취운상을 입고 구룡채 봉관을 쓰고 혼례석에 나와 혼례를 파한 후 침소에 돌아가매, 시랑과 부인이 용선으로 더불어 난간에 좌를 명한 후 다만 오 부인이 약간 주효를 마련하고 심정을 위로할새, 오 부인이 탄식하고 슬피 울며 왈,

“질녀의 팔자가 기구하여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잃고 우리를 따라 이곳에 와서 사위를 얻으매, 혼사를 완전히 차리고 빈객을 모아 남과 같이 성례하여 이웃과 친척이 다 혼인한 줄 알게 하여 망형의 고향을 위로할까 바랐더니, 이렇듯 뜻 아닌 환란을 만나 구차히 겨우 성례하며, 십이 세 유치 약질로 하여금
[B]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 아내로서 남편의 보살핌을 믿지 못할 듯하니 어찌 잔잉치 않으며, 사정 있는 사람이 어찌 차마 볼 바이리오. 제 몸이나 무사하여 내 곁이나 떠나지 아니하게 용선은 오늘로부터 중적을 그침을 바라노라.”

용선이 깨달아 절하며 왈,

“숙모님의 하교를 듣사오니 소질의 심사가 근심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리로소이다.”

공이 탄식 왈,

“부질없는 설화를 하여 사람의 심사만 상하울 것이니, 다시 무익한 말은 말지어다. 서로 심곡과 회포를 모름이 없으나 다시 말을 베풀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탄식하고 일어서니 오 부인과 오 소저는 중당으로 들어가고 용선은 봉선으로 더불어 공을 모셔 중헌으로 나왔더니, 봉선이 가로되,

“명일은 입직 차례라. 소제가 마땅히 석양에 궁궐로 들어가려 하오니 형장도 한가지로 가고자 하시나이까?”

용선이 깊이 생각하다가 일어나며 왈,

“오늘로 이별이 될 것이니 소저를 잠깐 보아 이별을 고하고 나와 한가지로 들어가리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용선은 궁에 들어가 공주와 혼인하나 오 소저를 잊지 못해 공주를 멀리한다. 공주는 보모를 시켜 용선의 뒤를 조사해 용선이 오 소저와 이미 혼례를 올렸음을 알고 분노한다. 공주는 태후께 말해 용선을 옥에 가두고 오 소저를 궁으로 불러들인다.

오 소저 태후 궁에 들어가니 태후와 공주 한 번 보매 과연 귀비의 색으로도 비하지 못할러라. 마음에 기어히 여겨 왈,

“저렇거든 권가 도적놈이 아니 혹하리오.”

마음에 투기와 불호(不好)한 마음이 분출하여 무수히 꾸짖되, 오 소저가 안색이 지약하여 답언이 없더라. 삼천 비빈과 육궁 분대(粉黛)는 다 애련히 여기고 또한 기특히 여겨 가로되,

“벽벽이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니, 공주가 조금도 다름없이 여기더라.

석 귀비는 용선의 외사촌 누이라. 오 소저가 궁중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귀비 반드시 저의 재용을 사랑하여 상께 고하면 상이 반드시 채취시킬까 마음에 거리끼되, 다른 계교 없어 근심하여 다음을 보아 오 소저를 참살할 것으로 생각하더라. 이때 석 귀비 오 소저의 환란 당함을 가련히 여기나, 태후와 공주가 기꺼 아니할 줄 알고 아직 모르는 체하나 심중에 잔인히 여기고 아낌을 마지아니하더라.

차시에 각처 제후가 홀연 천자께 상소하였으되,

“제왕(齊王)이 반심(叛心)을 두어 날마다 장사를 불러 모으고 군사를 조련한다 하오니 모름지기 일찍이 척지를 내리와 문죄하시고 그 기틀을 살피소서.”

하였거늘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마땅히 보낼 사람을 정하지 못하사 근심하시더니, 승상 주현이 태후께 가만히 고하여 왈,

“그 시각이 마땅히 계교를 행할 때오니 용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사신을 삼아 보내시고, 그 사이에 오 소저를 노국으로 보내어 세자의 후궁으로 삼으시면 공주에게 화가 없삽고, 노국 세자는 절색을 얻고 기꺼 하오리니 어찌 계교 기특치 아니하오리까.”

공주가 곁에 모셨다가 크게 대희하여 가로되,

“이 계교가 실로 묘하오니 급히 행하소서.”

주현이 명일에 상께 주 왈,

“이제 제국에 사신을 보내시려 하시면 문무겸전한 사람을 보내셔야 조정을 욱되지 아니하옵고 후환이 없을까 하오니, 엇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나이까.”

상이 가라사대,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경은 한 사람 천거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현이 다시 주 왈,

“죄인 권용선을 죄를 사하여 사신으로 보내시면 이 사람밖에는 명을 받들 이 없사오니이다.”

상이 본디 용선을 중히 여기시는지라. 정히 용선이 광서를 평정하던 지략을 생각하자 즉시 용선의 죄를 사하시고 상서의 품계를 내려 제국의 사신을 정하시고, 또 용선의 두 형에게 참정과 태부를 하사하니, 기실 흉계 어느 곳에 미칠 줄 알지 못할러라.

- 작자 미상, 「권용선전」 -

* 승천 입지: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취를 감춤을 이르는 말.

* 침음양구: 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

* 상명: 임금의 명령.

* 잔인: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려움.

* 기군: 임금을 속이는 일.

42. 윗글을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선은 궁중에 석 귀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위안을 얻었다.
- ② 용선과 오 소저는 강정에 있는 권 시랑의 집에서 혼례를 올렸다.
- ③ 용선은 오 소저와 이별한 후 봉선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하고자 했다.
- ④ 석 귀비는 자신이 오 소저를 걱정하고 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 ⑤ 태후는 주현이 용선을 제국의 사신으로 천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권용선전」은 ‘늑혼(강제 결혼)담’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늑혼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보인다.

이상적인 두 인물이 서로 사랑하여 정혼을 약속함.	광서를 평정할 정도로 지략이 있는 용선이 귀비의 색으로도 비하지 못할 용모를 지닌 오 소저를 만나 정혼을 약속함. ㉠
↓	
권력자에 의해 정혼자와의 결연이 방해를 받음.	용선의 지모와 인물을 알아본 공주가 정혼자와 이미 결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선과의 결혼을 추진함. ㉡
↓	
주인공이 주체적 의지로 정혼자와 결연하려고 함.	용선이 승천 입지하와도 오 소저와의 성례 전에는 공주와 성례를 하지 못하겠다고 오 소저와의 혼례를 강하게 주장함. ㉢
↓	
정혼자와의 결연이 지연되거나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음.	오 소저가 공주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와 태후와 공주에게 무수히 질책을 받음. ㉣ 용선은 제국에 사신으로 보내지게 되고, 오 소저는 노국에 보내져 세자의 후궁이 될 처지에 놓임. ㉤
↓	
고난을 극복한 주인공들이 진정한 결연을 이루게 됨.	용선과 오 소저가 서로 헤어질 운명에 처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결연을 이루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꿈에 나타난 인물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자신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다.
- ③ [A]에는 상대의 요청에 대한 생각이, [B]에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요청이 드러나 있다.
- ④ [A]와 [B]에는 인물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을 예상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요약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45. ㉠에 나타난 ‘권 시랑’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권 시랑’은 ‘오 소저’를 향한 ‘용선’의 태도가 ()할 것으로 판단했겠군.

-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 ⑤ 요지부동(搖之不動)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국어영역(공통) 답안지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②	①	④	①	④	⑤	③	②	④	③	①	③	③	②	③
문항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④	④	②	④	④	④	②	①	①	③	⑤	②	③	①	③
문항 번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정답	④	④	②	③	⑤	⑤	③	⑤	②	①	②	①	②	⑤	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